

碩士學位論文
指導教授 黃振洙

基督教 老人의 宗教活動과 生活滿足度에
관한 研究

A study on religious activities and life-satisfaction
of the Christian elderly

1999年6月

漢城大學校 行政大學院

福祉行政學科

社會福祉專攻

姜敬蕙

碩士學位論文
指導教授 黃振洙

基督教 老人의 宗教活動과 生活滿足度에
관한 研究

A study on religious activities and life-satisfaction
of the Christian elderly

위 論文을 行政學 碩士學位論文으로 提出함

1999年6月

漢城大學校 行政大學院

福祉行政學科

社會福祉專攻

姜敬蕙

姜敬蕙의 行政學 碩士學位 論文을 認定함

1999年 6 月 日

審査 委員長 印

審 査 委 員 印

審 査 委 員 印

目 次

제 I 장 서론	1
제1절 문제 제기 및 연구목적	1
제2절 연구의 한계	4
제 II 장 이론적 배경	5
제1절 기독교 노인	5
1. 성서에 있어서 노인의 이해	5
2. 노인의 심리적 특성	7
제 2절 노인과 종교	10
1. 노인의 종교 활동 이론	10
2. 종교 성향	15
3. 노인의 기독교 신앙과 윤리	16
제3절 생활 만족도	19
1. 생활의 만족도 개념	19
2. 노인의 생활만족도에 관한 이론	21
3. 노인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	26
4. 종교와 노인 생활만족도 선행연구	32
제 III 장 연구 방법	36
제1절 조사 도구	36

제2절	자료 수집 및 처리	36
제3절	연구 모형	37
제IV장	결과 및 분석	39
제1절	기독교 노인의 일반적 특성	39
제2절	종교활동의 관련요인	43
제3절	일반적 배경요인과 생활만족도	48
제4절	종교활동 요인과 생활만족도	51
제5절	소 결론	56
1.	일반적 배경요인	56
2.	종교활동 관련요인	57
3.	일반적 배경 요인과 생활만족도	58
4.	종교활동 요인과 생활만족도	59
제 V 장	결론 및 제언	63
參考文獻		66
<附錄>		71
ABSTRACT		75

表目次

<표 1> 지역별	39
<표 2> 성별	39
<표 3> 연령	40
<표 4> 자녀 수	40
<표 5> 배우자 유무	40
<표 6 > 생활비 충당	41
<표 7 > 생활수준	42
<표 8 > 건강정도	42
<표 9 > 직분	43
<표 10 > 신앙의 동기	43
<표 11 > 교회 출석 회수	44
<표 12 > 하나님 의지정도	44
<표 13 > 기도 · 말씀청취 · 묵상 시간	45
<표 14 > 가족 중 신자	45
<표 15 > 교회 활동여부	46
<표 16 > 기독교 교단별 구분	47
<표 17 > 구원에 대한 확신	47
<표 18 > 연령별 생활만족도	48
<표 19 > 성별에 따른 생활만족도	48
<표 20 > 자녀수에 따른 생활만족도	49

<표 21> 배우자 유무별 생활만족도	49
<표 22> 생활비 충당별 생활만족도	50
<표 23> 생활수준	50
<표 24> 건강정도에 따른 생활만족도	50
<표 25> 직분별 생활만족도	51
<표 26> 신앙의 동기에 따른 생활만족도	52
<표 27> 교회 출석횟수에 따른 생활만족도	52
<표 28> 하나님 의지정도에 따른 생활만족도	53
<표 29> 기도·말씀청취·묵상 시간을 하는가에 따른 생활만족도	53
<표 30> 믿는 가족별 분류에 따른 생활만족도	54
<표 31> 종교활동과 생활만족도	55
<표 32> 교단별 기독교 노인의 생활만족도	55
<표 33> 구원의 확신별 생활만족도	56
<표 34> 요인별 생활만족도	61
<표 35> 기독교 노인의 생활만족도	62

그림목차

<그림-1> 연구모형	37
-------------------	----

제 I 장 서 론

제1절 문제 제기 및 연구목적

한국은 지금 노인문제가 사회문제로 인식되는 중요한 요건은 전체인구 중 노인인구 비율의 증가에서 찾을수 있다.

가령 65세 이상의 노령인구가 전체 인구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7%에서 14%에 이르는데 걸리는 기간이 프랑스 115년, 스웨덴 85년, 영국 45년에 비해 한국은 단지 23년 정도밖에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한다.

2030년 이후에는 전체인구의 14.3%¹⁾로 드디어 외국처럼 고령화 사회로 들어서게 된다고 한다.

더욱이 우리는 지금 IMF²⁾ 경제위기 1년을 넘기면서 우리사회는 지금 어느 때보다도 노인들이 경제적 어려움과 외로움에 처해있는 현실이다. 경제적으로 힘들다보니 가정이 해체되고 부양가족이 없어 오갈 데 없게 된 노인들은 더욱 삶의 의욕을 잃어 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특히 노년기는 신체, 생리적인 감퇴로 인하여 건강수준이 낮아질 뿐 아니라 질병과 죽음에 대한 취약성이 증가하는 시기이다. 자녀 출가와 은퇴라는 사건은 수입의 감소, 가족관계의 변화, 역할 상실과 사회적 유대관계의 상실을 초래한다. 이로 인해 노인들의 자존심이 저하되고 외로움과 소외감, 인생의 어느 단계보다 주관적인 삶의 질이 저하될 우려가 있으며, 삶의 만족도도 낮아진다고 볼 수 있다.

노인들이 정서적으로 행복하다는 것이나, 심리적으로 만족하고 있다는

1) 통계청, 장래인구추이, 1997.

2) International Monetary Fund.

것이나, 성공적인 삶을 살았다는 것은 노인이 현재의 삶속에서 어떻게 만족하며 사느냐에 관계된다.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신자들의 경우에도 노인들의 전체분포도가 점차 높은 비율을 나타내며 또한 기독교 안에서의 노인복지 문제가 절실한 현재에서 보다 궁극적인 삶의 목표와 삶의 가치를 어디에 두고 사느냐에 따라 삶의 만족도가 변화될 것을 기대한다.

특히 한국 노인들은 대체로 삶에 대한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개인간 편차도 크다고 했다.³⁾

또한 IMF이후 KBS제1라디오가 공사 창립26주년을 맞아 “1999년 한국인의 행복지수” 여론조사를 밝혔는데 IMF이후 더 불행해졌다는 대답과 행복지수는 58점으로 밝혀졌고 3년 사이에 10점이나 떨어졌다고 한다.⁴⁾

이런 시점에서 사회적으로나 교회적으로 노인들의 삶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시도가 요구된다.

특히 우리나라 교회의 경우에는 급격한 사회변화와 함께 양적 질적으로 성장했다고 볼 수 있으나 한편에서는 현세적이면서 기복적인 경향과 독단, 배타주의, 내재되어 있다고 비판의 소리도 듣는다.

오늘날 교회의 사명이 무엇이며, 기독교인들의 삶의 참 모습이 요구되는 가운데 보다 나은 삶의 질 향상과 목회현장에서 노인들에 대한 관심이 더욱 필요로 하다고 본다.

본 연구는 우리 나라 기독교노인의 종교활동 중심으로 삶의 만족도를 측정하고자 한다.

오늘날 사회가 안고 있는 노인문제가 교회 안에서도 대두되어 가장 관

3) 김태현외 4명, “노년기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 제18권 1호, 한국노년학회, 1998, p. 164.

4) 국민일보, 1999년 2월 3일자.

심을 가지고 있어야 할 분야임에 틀림없다.

생활만족도 연구는 여러 방면에 걸쳐 시도가 되었지만 기독교 노인들의 종교활동과 이에 따른 생활 만족도와의 관계를 분석하는 연구는 없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기독교 노인들의 종교활동과 삶의 만족도를 가지고 연구하고 살펴보고자 한다.

사회적으로나 교회적으로 노인들의 생활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시도가 더욱 필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본 연구를 하게 되었다. 아울러 삶을 적절하게 통합하고 노년기에 이른 자기 자신을 수용하도록 하며 다가오는 죽음을 슬기롭게 맞이하도록 교회적인 입장에서 돕고자 하는 것이 연구의 목적이다.

본 연구가 기독교 노인들의 삶을 질을 더욱 향상시키는 노력의 한 부분이 되었으면 하는 기대를 하며,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변화를 모색하는 원리를 발견하며, 다가오는 세대에게는 가치 있는 삶을 보여주는 것으로 생각되며, 노인들에게는 더 질 높은 노후를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인간은 나이를 먹으면서 생리적, 신체적 기능의 퇴화를 가져온다는 것을 두려워하며 또한 일부 시각에서는 부정적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성경은 인간이 그만큼 살았다는 것은 어디까지나 축복된 삶이라고 말한다. 즉 노년기는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시기로 인식되는 교육적 프로그램이 교회마다 개발되어야 하며, 인생의 황혼기를 소망을 가지고 보람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뜨거운 관심을 가지고 돌보는 목회의 가정사역에 기초적 자료가 되고자 하며 노인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요인들을 기독교적 입장에서 밝혀서 좀더 노후를 참소망과 보람된 삶을 영위하는데 초점을 두고자 이 연구를 시도하게 되었다. 밝히고자 하는 연구는,

첫째, 기독교 노인들의 일반적 배경을 밝힌다. .

둘째, 기독교 노인들의 종교 활동을 분석한다.

셋째, 기독교 노인들의 일반적 배경에 따른 생활 만족도를 측정한다.

넷째, 기독교 노인들의 종교활동에 따른 생활만족도를 측정한다.

제2절 연구의 한계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와 제한이 작용하고 있음을 밝힌다.

첫째, 생활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많이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제한된 변수만 사용하였다.

둘째, 전국을 대상으로 하지 못하고 수도권과 인근 지역만을 대상으로 하였기에 본 연구결과를 우리나라 전체 기독교 노인의 생활만족도로 유추하는데는 제한점이 있다.

셋째, 본 연구의 척도는 서구 사회를 중심으로 개발된 측정도구이고 또한 기독교적인 교리와 신앙의 입각한 생활만족 측정도구와는 차원이 다를 수로 있기에 이 도구를 가지고 생활만족도를 측정하는 데는 무리가 있다고 본인은 생각한다.

넷째, 조사를 하는데 있어서 우리 나라 노인들의 특성이 남에게는 부끄럽거나 자신을 노출하는 것을 꺼리는 특성으로 답변에 무리가 있을 수도 있다고 본다.

다섯째, 연령이 높은 노인일수록 무학자가 많은 층이므로 글씨판독이 어려워 조사자가 직접 불러주고 작성하였기에 조사자의 주관적인 생각이 개입될 수도 있다고 본다.

제Ⅱ장 이론적 배경

제1절 기독교 노인

1. 성서에 있어서 노인의 이해

1) 구약에 나타난 노인의 정의⁵⁾

첫째, 장수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받아들인다.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도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창15:15)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너희에게 줄 땅에서 너희가 오래 살 것이다”(출20:12)

둘째, 노인은 지혜와 공경의 대상이라 했다.

“너희 부모들과 나이 많은 어른들에게 물어 보아라! 그들이 너희에게 설명해 줄 것이다.” (신 32:7) “너를 낳아준 아버지에게 순종하고 늙은 너의 어머니를 업신여기지 말라”(잠23:22)

셋째, 노인은 영광스러운 존재이라 했다.

잠언16:31에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요 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했고, 잠언 20:29에 “젊은 자의 영화는 그 힘이요, 늙은 자의 아름다운 것은 백발이니라”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노인이 영광스러운 존재인데, 백발의 면류관은 이 땅에서 왕에게서 받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영광이 백발에서 나타나며 거기서 참다운 인생의 과정이 드러난다. 그러므로 노인의 시기는 하나님께로부터 영광을 받는 시기이며, 참다운

5) 홍종효, “교회사역에 있어서 노인 문제에 관한 연구” 서울신학대학 신학대학원논문, pp. 10-13

기쁨을 누리는 때이다.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고통이나 소외의 시기가 아닌 것이다.⁶⁾

넷째, 노인도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자이다.

하나님은 노인들이 비록 신체적으로 연약하지만 그들을 불러 사용하신다. 아브라함이 그의 고향 갈대아우르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은 75세이었다. 모세가 산에서 민족해방 자로서의 사명을 받은 것도 그의 나이 80세 이었다. 하나님은 나이가 많다고 해서 쓰시지 않는 것이 아니다. 노인의 지혜와 경험을 이용하시는 것이다.

2)신약에 있어서의 개념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주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옳은 첫째 계명입니다. 그 약속은 계명대로 사는 사람이 복을 받고 오래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엡6:1~3) 구약성경과 비슷한 의미를 나타낸다.

부모와 노인을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며 인간의 도리인 것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노인이란 노동력을 상실한 경제적 손실로 보기 때문에 노인을 관리적 차원에서 생각하기 쉽다는 것이다. 그래서 현대 복지에서의 노인문제는 현상적인 문제만을 취급하는 경향이 짙다는 것이다.

그러나 성경에 나타난 노인문제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긍정적인 이해를 시키고 있다. 그리고 권능을 전달하는 전승자적 존재로 인정받고 있다. 따라서 노인은 사회적 무가치와 부담스러운 존재가 아니라 절대적 가치를 지닌 권위적 존재임으로 노인사회를 이해하는 풍토를 찾아야 할 것이다.

6) 강현원, “노인 교육과 교회성장”, 장로회신학대학 신학대학원 논문, pp. 19.

현대에 들어서서 대가족제도가 무너지고 도시화, 핵가족화, 산업화로 노년의 부모들이 될 수 있는 대로 자녀들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고 애쓰고 있는 것은 이해할 수 있으나, 자녀들에게 적절한 부모공경의 기회를 막는 것이 된다면 그것은 불행한 일일 것이다.

따라서 노인을 존경하고 노년의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이며 인류의 기초이다. 노년의 부모는 자녀의 효도를 막아서는 안 될 것이며, 보다 적극적으로 자녀들이 기쁘게 효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도 노년의 또하나의 의미라 하겠다.

2. 노인의 심리적 특성

노인은 신체적 노화와 함께 심리적인 측면에서도 부조화가 나타난다. 젊었을 때에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존경도 받고, 사회의 중요한 인물로서 대우도 받았었는데 노인이 되고 보니 사회나 가족으로부터 소외당하고 인생의 가치나 존재에 대한 목적을 찾아보기가 어렵다고 오늘날의 노인들은 호소하고 있다.

노인은 그들의 환경적 요인에 의하여 그 특유의 성격이 나타나는 데, 노년기의 감정의 특징은, 의심이 많고 질투심이 강하다.

또한 건강상 혹은 경제상의 불안감이 있고 신체적 쇠락에 대한 흥디도 증대한다고 한다. 조건이 변화함에 따라 학습이나 적응의 곤란이 올 수 있으며, 과거의 추억에 대한 집착을 보이고 허영심도 때로는 나타난다. 아집과 강함, 과장된 표현, 보수성이 강하며, 생활상의 적응 불완전으로부터 유리된 불안과 초조, 절망에 대한 기사를 읽고 동조도 하고 쾌활이나 행복감을 과장, 현대의 사회와 젊은이를 좋지 않게 생각하고 말하기를 좋아하며 동일한 말을 반복하는 특징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특징들은 정상 노인들뿐만이 아니라 병적 노인의 특징도 포함되는 것이므로 정상적인 노인의 심리적인 현상을 이해하는 데에는 문제가 많다.⁷⁾

지난날의 많은 전문가들은 노인문제를 경제적인 면과 의료적인 문제의 차원에서만 생각하였으나 그에 못지 않게 심리적, 정신적인 문제가 중요시하게 되었다. 그러면서도 노인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몇 가지 요인을 간추려 보면, 첫째, 신체적 요인으로 뇌동맥경화, 뇌의 노인성 변화, 순환기 장애, 고혈압, 뇌종양, 뇌의 만성 감염, 당뇨병, 등 대사장애로 인한 뇌기능 부전, 주정 중독, 약물 중독, 신부전 등 기타 신체장애로 오는 것과,

둘째, 심리 사회적 요인으로서는 정년 퇴직, 경제적 빈곤, 친지, 배우자, 자녀, 친족의 죽음 또는 이별, 심리적 고립과 소외감, 노인의 자존심이나 권위를 손상시킬만한 사건 등으로 오는 것이 있다.⁸⁾

이러한 노년의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장애로 인해 적응 능력이 저하되며, 자주 그리고 쉽게 욕구 불만에 이르러 불만의 반응으로 노인의 특성이 나타나는 것이다. 때문에 고령화가 진행됨에 따라 사회적 평가가 아래와 같이 달라지게 된다.

- ① 노인은 일반적으로 그 존재 가치가 저하된다.
- ② 고집과 거부 성격을 띠게 된다
- ③ 사회적 참여에서 소외되기 쉽다.
- ④ 가족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상실해 가고 있다.
- ⑤ 늙음에 대한 자아인식이 부족하다.⁹⁾

7) 민경익, “노인문제와 교회의 역할” 서울신학대 신학대학원, 1997, p. 13.

8) 김찬중, “노인선교를 위한 노인복지사역으로서의 노인교육 프로그램에 관한 연구” 아세아 연합 신학대학원 박사논문, 1986, p. 50.

9) *Irving Rosow*, Socialization to Old Age, (Los Angeles: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77), pp. 7~12.

그래서 가나안 농군학교 김용기 장로는 노년의 특징을,

- ① 잔소리가 많아진다.
- ② 노여움을 잘 탄다.
- ③ 먹고 싶어진다.
- ④ 몸의 상태가 좋지 않다고 규정하고 있다.¹⁰⁾

그러므로 노인들의 대부분의 정신적, 심리적인 욕구를,

- ① 우선 안정된 생활을 희망하고 있다.(정신적으로)
- ② 자신의 존재가치를 인정받고 싶어한다.
- ③ 활동하기를 원한다.
- ④ 많은 친구들을 사귀고 싶어한다.
- ⑤ 장수할 것을 몹시 원한다(건강하게)고 보았다.¹¹⁾

또한 손창달은,

- ① 노후 생활을 즐겁게 보내고 싶어한다.
- ② 다정한 친구를 갖고 싶어한다.
- ③ 무엇인가 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싶어한다.
- ④ 노인의 체력으로 감당할 수 있는 노력을 하고 싶어한다.
- ⑤ 집안에서 간단한 일거리를 갖고 싶어한다.
- ⑥ 남에게 인정받고 싶어한다.
- ⑦ 젊은 사람과 어울려 일하고, 즐겁게 놀고, 사이좋게 지내고 싶어한다고 보았다.¹²⁾

또한 노인들은 앞으로 자기의 남은 세월이 짧다는 것을 느끼며 죽을

10) 김용기, 가나안 농군학교 교재, 1979.

11) 김성순, 노인복지론, 서울: 이우출판사, 1981, pp. 95~96.

12) 손창달, 노인과 가정, 노인교과서, 서울: 한국노인문제 연구소, 1977, p. 5.

때 무엇인가를 남기려고 한다. 이것은 자손, 예술 작품이나 문학, 독특한 기술, 지식, 신앙, 부동산, 돈 등 무엇인가를 이 땅에 남기고 싶어한다고 한다.¹³⁾

제 2절 노인과 종교

1. 노인의 종교 활동 이론

Allport 와 Ross¹⁴⁾ 는 개인의 종교적 목표가 자아 실현에 따른 궁극적인 목표이건 집단에의 참여로부터 올 수 있는 위안을 얻기 위한 목적이건 종교는, 생활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고 하였다.¹⁵⁾

또한 Milton과 Barron¹⁶⁾은 종교의 기능을 심리적 혹은 개인적 차원과 사회적 차원으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다.

특히 노인에게 있어 종교는, 심리적, 개인적 차원의 기능을 다음과 같이 4가지로 본다.¹⁷⁾

- 1) 임박한 죽음을 긍정적으로 맞이하도록 돕는 기능.
- 2) 삶의 의미와 중요성을 계속 느끼고 발견하도록 돕는 기능.

13) 윤진, 성인노인 심리학, 서울 중앙적성 출판사, 1985, pp. 181-189.

14) C. W. Allport & T. M. Ross, "Personal Religious Orientation and for SSR, Vol. 5" 1967.

15) 권규식, "핵가족화와 노인문제", 성곡논총, 4편, 서울: 성곡학술문화재단, 1993, p. 615.

16) M. L. Barron, "The American: An Introduction to Social Gerontology and Geriatrics" (New York: Tomas Y. Crowell.1961), pp. 278~279.

17) 이영길, "노인의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 -종교 및 사회활동참여 중심으로-, 청주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4, p. 15.

3) 노인이 되면 숙명적으로 경험하는 상실감을 인정할 수 있는 심리적 안정감을 받아들이는 기능.

4) 노년기에 잠재해 있는 보상적인 가치들을 개발 이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능을 한다.

노인에게 있어 종교가 노인에게 주는 사회적 차원의 기능으로는, 교회가 노인들로 하여금 공동체의 모든 연령층을 끌고루 사귄 수 있게 맺어 준다는 점과 노인에게 있어서 다양한 사회적 접촉의 기회를 제공해 줌으로써 소외감을 감소시키고 소속감과 함께 자아정체감을 지닐수 있게 해 준다는 것이다.

이렇게 개인의 노후생활에 있어 종교생활은 성공적인 노화에는 물론 삶의 새로운 의미를 찾고자 하는데에도 중요한 환경적 변이으로 작용하며, 더 나아가 죽음에 대한 긍정적인 수용태도와 노년기의 상실감을 인정할 수 있는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하며 잠재적인 노인의 보상적 가치를 개발, 이용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한다. 또한 종교는 사회와 개인을 통합시켜 주는 중간적 매개체로서 기능을 가지며, 특히 부양적 기능의 종교적 역할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종교의 부양적 기능이란 결핍을 느끼는 개인에 대한 심리적, 물질적 부양을 의미하는 것으로,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지위가 낮은 노인에게 있어 종교의 부양적 기능은 매우 중요하며 실질적으로 많은 노인들이 의존하고 있다.¹⁸⁾

생의 어느 단계에서나 삶에 대한 의미의 문제, 귀속감, 자기 정체감의 문제가 있는데 청년기나 장년기에는 이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기제들이 육체적으로나 심리적으로 또는 사회적으로 용이할 수 있다. 그러나

18) 한상호, “종교가 노인에게 미치는 영향” 한국 학술재단, 1991.

노인의 경우에는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기제가 마련되지 않는다. 마련된다 하더라도 충분하지 않으므로 노인에게 있어서 종교는 청년기의 사회적, 가정적 역할을 통해 확인되었던 자신의 지위를 정신적으로 확인해 줄 수 있는 기능을 한다.¹⁹⁾

이러한 종교의 기능에 의해 노인은 새로운 역할을 하게 되고 이에 따라 또한 새로운 귀속감을 확인하게 되며 이런 과정을 통해 노인에게는 새로운 존엄성이 부여되는 것이다.

서구 사회에서는 노인의 종교 생활은 주로 교회를 중심으로 제한되어 종교 활동이 이루어진다고 볼 때 교회 출석 및 참여도는 산업화 이전이나 이후 관계없이 노인의 삶의 만족과 관련이 있다.

일반적으로 노인의 종교생활 정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가장 많이 사용되었던 지표는 교회 참석률이었다. Bahr는 노인들의 교회 참석율을 중심으로 연구한 결과를 가지고 4가지 모델을 제시하였다.²⁰⁾

종교활동 이론으로는 전통적 이론(transitional theory)과 고정적 이론(stability theory), 그리고 은퇴이론(disengagement theory)등이 있으며 때로는 가족주기 이론이 포함되기도 한다.

전통적 이론이란 20대까지는 종교활동이 저조하나 30대부터 연령이 증가할수록 종교활동이 증가한다는 이론이며, 고정적 이론 연령과 관계없이 종교활동이 계속된다는 이론이다. 은퇴이론은 연령이 증가할수록 종교활동이 감소한다는 이론이다.

가족주기 이론은 가족의 생활 주기에 따라 변화한다는 이론이다.

그러나 Wingrove는 개인의 연령이나 성별, 동료 집단과의 관계와는 상

19) 노인복지편람, 아산 사회복지 사업재단, 1985, p. 803.

20) H. Bahr, "Aging and Religious Disaffiliation", Social Forces, 1970, No. 49, pp. 356-358.

관없이 그가 처한 사회환경의 변화에 따라 종교활동이 증감한다고 하였다.²¹⁾

여러 학자들은 노인의 종교심을 측정하는데 있어서 교회참석율과 공적, 조직적 참여도만 가지고는 미흡하다고 여기면서 개인의 신앙행위나 믿음 정도, 그리고 가치관 등을 포함하는 개인적, 비조직적 종교참여도도 함께 고려해야한다고 주장한다.

Moberg²²⁾는 종교를 초자연적이고 신비적인 차원의 이세상을 초월하면서도 인간과 우주에 대한 궁극적 질문과 관련된 믿음, 가치관, 그리고 활동이라고 정의하면서 두가지 측면, 즉 개인적 측면과, 조직적 측면을 분리하여 설명하고 있다. 종교의 개인적 측면은 개인의 내적 가치관, 신조 그리고 태도와 같은 것이며 개인적으로는 사사로이 바치는 기도나 영적 독서 같은 것도 포함된다고 한다.

한편 조직적 측면은 교회에서 거행하는 다양한 전례행사나 공동체적 활동에 관련된 공적행위들을 말한다.

대부분의 연구에서 연령과 종교 활동과의 관계를 설명해 주고 있으나 일정한 이론으로는 설명되어 질 수 없다.

Blaze와 Palmore는 70세 이상된 노인의 경우 종교적 활동은 감소하나 종교적 믿음은 계속된다고 하였으며,²³⁾

Moberg도 종교에 대한 믿음, 활동, 태도, 지식 등을 종교성에 대한 하부 영역으로 선정하여 연구한 결과 위와 같은 연구와 일치하는 결론을

21) Wingrove & Alston, "Age, Aging and Church attendance" The Gerontologist 1977. pp. 356-358.

22) D. Moberg, "Religion in the later years", In A. Hoffman(Ed), The daily needs and interests of older persons. Springfield IL: Charles C. Thomas. 1970.

23) Blazer & E. Palmore, "Religion and Aging in a longitudinal panel" The Gerontologist 16. 1976. pp. 82-84.

내렸다.²⁴⁾

반면에, Crandall은 종교적 믿음과 종교활동 특히 종교 참여도가 노년기에 증가된다고 하였다.²⁵⁾

또한 Hunsberger도 연령이 증가할수록 종교활동이 증가한다고 하면서 특히 종교성이 높은 집단에서는 유의미한 정도로 증가한다고 하였다.²⁶⁾

노인은 종교생활을 하므로 인해 자신의 기대와 현실과의 불일치에서 오는 갈등을 스스로 조절할 수 있게 되며 생활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 실질적으로 종교적 믿음과 참여가 모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와 종교 참여 정도만이 정적인 관계에 있다는 연구들도 있다.²⁷⁾

노인의 종교생활은 가족 생활과도 깊은 관계가 있으며 종교생활을 하는 노인일수록 가족 결속력이 증가하게 된다. 이는 곧 노인세대와 성인 자녀 세대의 세대 차로 인한 갈등이 종교를 통하여 쉽게 해결되며 세대 간의 협상과정에 있어서도 기대감 차이로 올 수 있는 실망감을 종교적으로 승화시킬 수 있도록 하게 하는 종교의 중재적 역할로써 Wilkinson과 Tanner의 연구에서 이들의 인과관계를 설명해 주고 있다고 한다. 즉 개인의 종교 참여도는 가족과의 관계를 가족중심에 의해서만 유지하는 대신 비가족적 활동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관계를 강화하며 이로써 가족 간의 애정이나 결속력을 증가시킨다고 하였다.²⁸⁾

24) David D. Moberg, "Religiosity in old Age" B. L. Neugarten, Middle Age had Aging the University of Chicago. 1975. pp. 497-508.

25) R. C. Crandal "Gerntology: A Behavioral Science Approach "Addison Wesel, Reading, M .A.

26) Brauce Hunsberger, "Religion, Age, Life Satisfaction and Perceived Sources of Religiousness: A Study of Older pearsons" J of G 40(5) 1985. pp. 615-620.

27) 김수연, "도시노인의 생활만족도와 관련 변인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원 석사 논문, 1987. p. 27.

28) Melvin L. Wilkinson & William C. Tanner, "The Influence of Family Size, Interaction and Religiosity on Family Affertion in a Morman Sample" J of M. F. 1980(2). pp. 297-304.

그 외 Blazer와 Parmor는 70세이상 노인의 경우 종교적 활동은 감소하나 종교적 믿음은 계속된다고 하였으며 Moberger도 종교에 대한 믿음, 활동, 태도, 지식 등을 종교성의 하부영역으로 설정하여 연구한 결과 종교적 활동에 많이 참여하는 노인들이 생활만족도가 높다고 하였다.²⁹⁾

2. 종교 성향

Allport(1967)는 종교 성향을 한마디로 정의하기 보다는 내재적 성향(intrinsic)과 외향적 성향(extrinsic)의 양성을 지니고 있는 연속선상의 개념으로 이해하였는데 그는 대부분이 신자가 그 양극의 연속선상 어디인가에 위치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였다.

가. 내재적 종교 성향

Hood(1985)는 종교가 자기 관심의 한 형태가 아니다. 오히려 종교 자체에 가장 중요한 동기와 의미를 둔다.

즉 이들은 전 생애를 통해 종교의 영향을 받으며 종교속에서 궁극적인 의미를 발견하며 진지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부류들이다.

이들은 초기의 이기적이고 외향적인 종교성향의 요소들을 극복하여 광범위한 종교적인 시각을 통해 인류애의 근원을 형성한다고 한다.³⁰⁾

나. 외향적 종교 성향

종교가 생의 중심동기가 아니다. 단지 도구적인 역할을 할 뿐이다. 이

29) 이 영길, “노인의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 청주대학 행정대학원 석사 논문, 1994, p.16 .

30) Hood, R. W. Jr(1985), “The conceptualization of religious purity in Allport's typology”, Journal of the scientific study of religion.

는 자기관심으로 정리될 수 있고 종교로서 이를 합리화 한다. 즉 자신 스스로의 목적에 맞게 종교를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그들의 가치관은 늘 도구적이고 실리적이며 종교를 위한 사회화, 기분전환, 지위와 자기 정당화를 위해 유용한 것으로 여긴다.

그들에게는 종교적인 가르침이 삶에 적용되지 않는다.

Allport³¹⁾는 이러한 특성에 따라 외부 지향적인 동기를 미성숙한 동기로 보고 많은 사람들이 이런 미성숙한 동기를 가지고 종교를 믿는다고 보았다. 그래서 그는 종교성은 내재적 성향과 외향적인 성향의 양극으로 하여 모든 사람들이 그 사이의 한 점에 존재 할 것이라고 가정하였다.

3. 노인의 기독교 신앙과 윤리

주관적 복지 수준이 높은 사람들은 자기 존중감이 높으며, 자신과 주위에 대한 통제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며, 낙천적이고 외향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또한 행복한 사람들은 신앙심이 있고 주위의 친구나 친척들과 보다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므로 신앙이 성숙한 사람일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을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이며 개인적이고 구체적인 관계를 의미한다. 신학적으로는 신앙은 지적 발견에 대한 인격적 결단이다. 종교 개혁자 “칼빈”(1991)은 “기독교의 신앙심이란 마음에 와 닿음이 없이 머리에서만 감도는 신에 대한 지식이나 성경에 대한 이해가 아니며 한 마음의 확신이어서 약속하시는 것들에 대한 확고하고도 틀림

31) Allport, G, W. Ross. J. M.(1967), “Personal religious orientation and prejudic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 5 No. 4. p. 432-443.

없는 소유를 의미한다”고 했다.

Ott는 신앙이란 “게시된 내용의 지식과 그 지식에 대한 동의 그리고 신뢰”라 하고 Fowler는 “인간의 삶을 구성하고 있는 다양하고 강한 힘들과 관계들에 의미를 부여해 주는 것이며 또한 공유되어 있는 의미와 목적에 근거하여 자신들과 타인과의 관계를 이해하는 방법”이라고 하였다.³²⁾

신앙이란 우선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의 선물이기도 하지만 그 은총을 받아들이는 인간 편에서 본다면 지, 정, 의에 걸친 전인적인 응답으로써 인지적 차원에서의 “신념”과 정의적 차원에서의 “신뢰”와 의지적 차원에서의 “행위”를 포함한다고 했다.

이상의 정의들을 종합하면 신앙이란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교리에 대한 지적인 동의와 그 말씀을 생활 속에 적용하며 실천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신앙심이 어느 정도 성숙하였는가를 측정하는 것은 용이하지 않다.

스위스의 내과 의사 Paul Tournier³³⁾는 노년기를 가리켜 “인간이 행동하는 불꽃 속에서 할 수 없었던 것보다 더 천천히 틈을 내서 자기 인생을 반성하고 무엇이 가치 있었는가를 찾아보는 시기”라고 하였다.³⁴⁾

또한 요시야마 노보루는 “늙음과 죽음은 그 치욕과 무기력함의 현실을 통하여 영원한 가치에 사람을 눈뜨게 하는 것라고 하면서 노년기를 성숙의 시기로 보고 있다. 동시에 그는 “건강의 쇠퇴가 노년의 중요한 징표

32) 이종문, “기독교인의 신앙 성숙도와 삶의 만족도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원 석사 논문, 1995, p. 10, 재인용.

33) Paul Tournier(1898-?), 스위스의 내과 의사, 1928년 제네바에서 병원을 개업하여 일반의학에 정신요법을 활용한 “대화”를 통한 치료법의 일환인 “인격의학”을 주창하였다.

34) Paul Tournier, 인생의 사계절, 한준석 역, 서울:종로서적, 1981, p. 127.

이지만 그와는 반대로 나타나는 마음의 깊이를 노년이라고 말하면서 현대의 제 사회과학적인 정의와 해석을 경계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현대 기독교 윤리학의 입장에서는 생명의 질, 즉 생명의 존엄성이 핵심적 논쟁점이 되고 있다. 생명은 하나님과 더불어 살 미래에 대한 실존적 논쟁점이다. 또한 생명은 하나님과 더불어 살 미래에 대한 실존에 대한 짧은 예비로서 곧 “사라질 안개”로 제시되며, 노년은 이러한 다른 삶에 대한 전주곡으로 제시되기 때문이다.

모버그(David, D. Moberg)와 기타 여러 사람들의 연구들은 기독교적 신앙이 노년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을 증명했다.³⁵⁾

그들에 의하면 기독교가 노년기의 삶속에서 “삶의 의미에 대한 심원한 개념과 성도들의 친교에서 오는 삶의 위로”를 제공하고 있다는 것이다. 모든 성도들은 각자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이며 각자가 서로의 지체가 되는 것이라는 성서의 사상에 입각해서 노인은 모든 다른 성도들에게 기울여지는 관심보다 더 많은 관심으로 노인복지에 임해야 할 것이라 여겨진다.

참으로 노인은 공동체에 매우 귀중한 인생관을 제공하여 준다. 장년기는 종종 자손과 재산, 높은 야망과 큰 포부로 가득 채워진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노년기는 건전한 판단, 생의 의미에 대한 재평가, 물질적 가치에 반대되는 정신적 가치의 재확인이라고 볼 수 있다.

노년의 고독은 하나님의 현존을 체험하며 위로를 받게 됨으로서 은총을 경험하게 되는 시기이기에 노년기야말로 가장 진지하게 인생의 본질에 대해 이해하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 깊이 사념하는 은총의 시간이라 말할 수 있다.

35) 기독교 대백과사전, 제 3권, p. 546.

제3절 생활 만족도

1. 생활의 만족도 개념

생활의 만족이라는 개념이 일반화된 것은 1961년 Neugarten, Havighurst, 그리고 Tobin이 노인의 생활만족도 지수(Life Satisfaction Index)를 개발한³⁶⁾ 이후로 보고 있다.³⁷⁾

그 이후 1979년 George³⁸⁾가 생활 만족 도를 새로이 개념 정의하기 이전까지 생활 만족도라는 개념은 주로 사기 또는 행복감이라는 관념과 상호 교환적으로 또는 혼용되어 왔다. 먼저 Bradburn³⁹⁾은 노인의 생활에 대한 심리적 복지 감을 행복감이란 개념으로 파악하였으며 따라서 행복감이란 긍정적인 감정이 부정적인 감정을 능가하는 정도라고 정의하였다.

한편 Lawton⁴⁰⁾은 노인들의 생활에 대한 적응 또는 만족을 사기라는 개념으로 파악하였는데 즉 사기는 다차원적인 개념으로써 사기가 높다는 것은 자기자신에 대한 만족감, 환경 속에 자신이 차지할 자리가 있다는 느낌, 그리고 변경될 수 없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정도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았다.⁴¹⁾

36) B. L. Neugarten, J. Havighurst & S. Tobin, "The Measurement of Life Satisfaction", *Journal of Gerontology*, 16, No. 2, 1979, p. 141.

37) 최성재, "노인의 생활만족도 척도개발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한국문화연구원, 논총, 제42집, 1986, 10쪽.

38) L. K. George, "The Happiness Syndrome: Methodological and Substantive Issues in the Study of Social-Psychological Well-Being in Adulthood", *The Gerontologist*, 19, 2, 1979.

39) N. M. Bradburn, *The Structure of Psychological Well-Being*, (Chicago: Adine, 1969)

40) M. P. Lawton, "The Dimensions of Morale" *Research Planning & Action for the Elderly*, ed. K. R. Kastenbaum & S. Sherwood (New York: Behavioral Publications, 1972), p. 148.

41) 김명자, "여가활동과 행복한 노후생활의 향유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원 박사학

그러나 George는 이러한 개념의 혼용상태에 대하여 사기, 행복감은 생활 만족 도라는 개념과는 각기 구분되는 개념으로 파악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3가지 개념을 정의하였다. 즉 사기는 용기, 훈련, 확신, 열의, 및 곤란을 인지하는 의지에 대한 정신적인 상태로서 현재의 유쾌한 감정을 느끼는 일시적인 기분이라고 봄으로써 현재의 상태에 대한 평가를 주관점으로 삼는 것을 비교하여 자신이 전반적인 존재상태를 평가하는 것으로서 인생의 장기적인 관점에서 평가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기존의 연구에 있어서 이들 개념들은 서로 비슷한 현상을 나타내는 것으로 혼용되고 있으며 따라서 일반적으로 생활 만족 도는 사기, 행복 도와 같은 개념에 속하나 좀더 종합적인 개념으로써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다.⁴²⁾

생활 만족도라는 개념을 최초로 사용한 Neugarten과 그의 동료들에 의하면 생활만족이란 매일의 생활을 구성하는 활동으로부터 기쁨을 느끼며 자신의 생활에 대해 의미와 책임감을 느끼고 자기 목적을 성취하였다고 느끼며 자신에 생활에 대한 의미와 책임감을 느끼고 자기의 목적을 성취하였다고 느끼는 가운데 긍정적 자아상을 지닌 즉 자신이 가치 있다고 여기는 낙천적인 태도와 감정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정의한다.

Medley는 생활만족도를 자신의 생애를 의미 있게 받아들이고 적어도 주요한 목표를 성취하였다고 느끼며, 자율적으로 주위의 환경과 잘 대응해 나가 정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고도 개인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정도라고 정의하였다. 또한 Medley는 생활만족도를 개인의 정신건강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로 파악하고 생활 만족도의 개념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즉, 개인은 다른 사람과의 비교를 통해 자신

위 논문, 1993, p. 33.

42) 최성재, 전제서, p. 11.

을 평가하게 되는데, 이때 개인의 기대수준이 합리적으로 충족되었는가에 대한 평가를 생활 만족도라고 보았다.⁴³⁾

여러 개념정의를 종합해 볼 때 필자는 Medley의 개념정의를 가장 적합하다고 본다. 사람은 나 아닌 타인과 더불어 살아가면서 상호 작용하는 가운데 나를 비교하면서 살기 마련이다.

개인이 상호적 변화를 인식하는 것도 상호작용을 통해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자신에게 적절한 행동, 태도 그리고 기대수준이 형성된다고 보기 때문이다.

더욱이 노인에게 있어서 성공적인 노화의 의미는 오랜 세월을 살면서 살아온 삶의 가치관과 자아개념 거기에다 필자는 종교적인 신념 등에 의해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연속적인 과정의 결과로서 얻어진다고 볼 수 있다.

2. 노인의 생활만족도에 관한 이론

1) 사회은퇴 이론

사회은퇴설⁴⁴⁾을 주장하는 Cumming과 Henry⁴⁵⁾는 노화란 노인이 사회적 상호 관계에서 이탈 또는 유리되는 상호적 은퇴 과정으로써 이는 자연적으로 발생하게 되는 현상이라 한다.

이 이론은 노인의 생활적응을 나타내는 생활만족도를 노인의 역할 및 활동과의 관계에 의해 설명하는 이론이다.

43) 최성재, 전제서, 11쪽.

44) 사회은퇴설은 disengagement theory 의 번역으로 사회유리설로 사용하기도 한다.

45) Cumming, E. & W. Henry, 1961, Growing old : The process of Disengagement, New York Basic Book.

즉 노년기에는 사회적 상호 관계에서 역할 수행이나 자아 몰입의 양이 크게 줄어든다고 보고, 이는 노화에 따른 신체적 활력의 감퇴와 이에 따른 사회적 활동의 축소, 배우자의 죽음 등에 기인하여 전반적으로 가정적, 사회적 역할이 감소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노년기에는 노인이 모든 적극적 활동으로부터 심리적 에너지를 거두어들리게 되며, 이러한 과정이 정상적이고 성공적인 노화과정이라고 보았다.

그런데 이러한 사회적 유리라는 불가피한 사실을 사회적인 차원에서 제도적으로 인정하고 마련된 것이 산업사회에서 나타나는 정년퇴직 제도이다. 즉 현대 산업화된 사회에서는 능률 위주의 원칙이 보편적으로 통용되므로 신체적 활력이 저하되는 노인은 젊은 사람에 비해 노동력이 떨어짐으로써 자연히 사회적 역할과 지위로부터 물러나게 되며 이는 사회 은퇴 설의 입장에서 볼 때 노인 개인과 사회 모두를 위해서도 바람직한 것으로 보여지게 된다⁴⁶⁾는 것이다.

노인들은 노화되면서 활동수준이 낮아지고 좀더 수동적인 역할을 찾으며, 타인과의 상호 작용도 감소하고 자신의 내면적 삶의 더 몰두하는 것이 정상적이고 필연적이며 이러한 사회적 은퇴과정이 노인들에게 만족감을 높여 주게 된다⁴⁷⁾는 것이다.

즉 이 이론은 모든 사람은 다 죽기 때문에 권력을 노인으로부터 젊은이에게 이양하는 규범적 방안은 자연스러운 것이며, 은퇴과정은 개인과 사회에 있어서 결과적으로 긍정적이라는 가정에서 출발하였다.⁴⁸⁾

46) 김명자, “여가활동과 행복한 노후생활의 향유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1993, p. 35.

47) 이춘희, “남자노인의 역할활동과 생활만족도”.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2. p. 7. 재인용.

48) 박계범, “노인의 가정내 역할과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그러나 현재 이 이론은, 오늘날 날로 변화 되고 개인적 성취 및 업적을 중시하는 청년 중심의 사회에서 정년퇴직이라는 이름으로 노인을 생산현장 밖으로 밀어내려는 이론이라고 비난 받고 있다.

2) 사회 활동 이론

Maddox가 주장한 사회활동 이론은 기본적으로 사회적 활동의 참여 정도와 노인의 생활만족도는 상관 관계가 있다는 것이다. 즉 노인의 사회적 활동의 참여 정도가 높을수록 노인의 심리적 만족감 또는 생활만족도가 높다는 것이다.

Maddox는 사회 은퇴 설의 기본 전제는 받아들이나 정년퇴직이라는 제도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즉 그에 의하면 사람은 누구나 활동할 능력이 있을 때 능력껏 활동을 계속하다가 신체적, 정신적 노쇠로 인하여 더 이상 활동할 수 없게 될 때 가정과 사회적 활동으로부터 서서히 손을 떼게 되며 이러한 정상적이고 점진적인 사회적 유리는 자연스러운 과정이라고 한다. 그러나 인위적으로 마련된 정년퇴직이라는 사회제도는 강제로 노인을 유리시킴으로써 노인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있다. 즉 노인은 자발적으로 완전히 사회적 관계를 끊을 때까지 적절한 활동을 계속함으로써 생활의 질, 신체적 및 정신적 건강을 높일 수 있으며 인위적인 사회제도를 통하여 강제로 이러한 활동을 계속하지 못하게 될 때에는 고립감, 무력감으로 인하여 생활의 만족도가 떨어진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쇠퇴를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는 아직 남아 있는 잔여 능력을 십분 발휘할 수 있도록 노인의 활동을 증가시켜 주는 방법이 가능하며 이를 통해 노인의 생활 만족도를 증가시킬 수 있다는 사회활동 이론을 주장하였다.⁴⁹⁾

석사학원논문, 1985, p. 5. 재인용.

그러므로 노인이 노후에 생활만족을 얻기 위해서는 자신의 기존 활동을 계속 유지해야 하며, 노후에 포기해야만 하는 기존의 사회적 역할에 대해서는 그것을 대신할 수 있는 새로운 대체활동을 찾아야만 한다. 즉 노인의 생활만족도는 노화에 의하여 감소되는 것이 아니라 역할 상실에 의하여 감소되며 사회적 활동과 사회에서의 상호 대인적 관계가 생활 만족도와 사기를 유지시켜 준다는 것이다.⁵⁰⁾

이 이론에 의하면 활동에 많이 참여하고 또한 치밀한 행동을 할수록 노인의 생활만족도가 높이 유지됨으로 노령기에도 많은 사회적 관계의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며, 특히 퇴직을 인하여 상실된 역할 활동을 대치할 만한 다른 활동에의 참여가 필요하게 된다는 것이다.

특히 오늘날 경제위기로 인한 현실에서 은퇴할 나이도 아닌데 어쩔수 없어 밀려나고, 조기퇴직, 명예퇴직을 당해야하는 현실이 안타깝다.

3) 교환이론

Dowd⁵¹⁾는 교환 이론 입장에서 노인의 생활만족을 논하고 있다. 교환 이론의 기본적인 입장은 공리적 경제 원칙, 쾌락주의적 원리 그리고 행동주의 적인 심리학 이론에 근거를 둔 것으로 인간행동의 목적을 고통을 피하고 쾌락을 얻으려는 것으로 본다. 따라서 이득을 최대한 얻기 위하여 이득이 되는 행동(상호작용)은 반복하려 하며 비용이 보상보다 더 많이 들게 되는 행동은 그만두려고 한다. 그리고 교환이론의 또 다른 중요

49) 김명자, “여가활동과 행복한 노후생활의 향유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3. p. 35.

50) 이철우, “정년퇴직 노인들의 퍼스넬리티와 생활만족도의 관계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0. p. 12. 재인용.

51) J. Dowd, “Aging as Exchange: A preface to Theory”, *Journal of Gerontology*, 30, No. 5, 1975.

한 전제는 배분적인 공정성의 이치로써 동등하지 않은 보상으로 끝나는 개인들의 교환관계는 권력과 관계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즉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원이 많을수록 보상을 많이 받게 된다는 것이다.⁵²⁾

그러나 현대의 산업사회에서는 산업화, 기계화에 따라 전문적 지식이 요구됨으로써 전통적 사회에서의 노인과는 달리 일상적인 상호작용에서 교환적 가치가 있는 교환자원이 새로이 교육받은 젊은 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하게 된다. 따라서 현대 산업사회에서의 노인은 다른 집단과의 관계에서 불리하며 사회적으로 지위가 하락하게 된다. 이와 같은 노인의 사회적 지위의 하락은 일련의 상호작용관계에서 결과된 것으로 능률 위주의 산업사회에서 노인의 교환자원이 보상을 가져올 수 없을 만큼 다른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감소되기 때문이다. 즉 노인의 교환자원의 상실 정도에 따라 생활만족도는 달라진다는 것이다.

4) 인성이론

노인 개개인간의 퍼스낼리티(personality)가 노인들의 성공적인 노화를 설명하는데 중요한 요인으로 노인들의 생활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퍼스낼리티가 중요하다고 하였다.⁵³⁾ 인간은 생물학적 개체로 태어나서 사회적 관습과 행동 양식을 배우고 익히면서 성장해 나간다고 할 수 있다. 이와같이 성장과정이 인성형성의 과정으로서 성격 특성은 인간개체가 주위의 상황으로부터 끊임없는 작용을 받아 거기에 대해서 반작용을 가하면서 하나의 통일체를 지속해 나아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⁵⁴⁾

52) 김명자, 전제서, pp. 35-36.

53) 장상희, “대도시 노인들의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3, p. 62.

54) 권규식, “핵가족화와 노인문제” 성곡논총 제 4집. 1973, p. 615-665.

그러므로 노인에게 있어서 성공적인 노화는 노화에 따라 특별히 구분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장기간에 걸쳐 가치관·자아개념 등에 의해 복합적으로 일관성 있게 이루어지는 것으로, 노인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사회적 환경과 내적 과정에 의해서 급작스럽게 변화하지 않으며 오랫동안 세워진 욕구와 조화를 이루어 환경과의 지속적인 선택을 통하여 성격 유형이 바뀌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최근의 학술적 연구에서도 노인들의 성격 변화는 연령이 증가에 따라 개인간의 특성·특히 행동특성에 많은 변화를 가져옴으로 인해 노년에서의 적응 양식은 물론 생활 만족도에 차이를 가져 온다고 한다.⁵⁵⁾

“하비거스트”와 그의 동료들은 인간의 인성유형을 생활만족도에 초점을 맞추어 분류한다. 즉 통합형·완전무장·방어형의 인성 유형이 생활만족도가 높은 반면, 수동·의존적 인성유형은 생활만족도가 높거나 중간 수준이며, 비통합된 인성유형이 생활만족도가 가장 낮음을 밝혔고, “페터러슨”과 그의 동료들도 인간의 인성을 성숙형·완전무장형·은둔형·분노형·자학형·으로 나누고 성숙형·완전무장형·은둔형의 노인들이 적응을 잘하여 생활만족도가 높은 반면, 분노형과 자학형은 적응을 잘 못하여 생활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⁵⁶⁾

3. 노인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

1) 성(姓)별

55) 윤진, 성인 노인 심리학, 중앙적성 출판사, 1985, p. 192.

56) 이철우, “정년퇴직 노인들의 퍼스넬리티와 생활만족도의 관계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1990. p. 33.

성에 의한 분류는 전체 사회의 기본적 구성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전통적 성에 대한 개념은 가정에서의 노동 분배에 기초를 두고 있어, 남자는 직업을 통해 자신의 지위를 인정받고 여자는 주로 가정안에서의 역할에 의해 사회적 지위를 인정 받는다.

상당히 최근까지도 여성의 전통적 역할 규범은 가사와 자녀 양육에 중점을 두었고, 직업은 역할 의무의 부수적인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이러한 행동규제는 교육, 양육과정을 통한 일반적 능력, 지능의 차이, 성격과 사회적 역할의 차이, 권리와 의무의 차이, 평등과 불평등의 논란 등에 많은 논의가 있었다.⁵⁷⁾

노인의 성별에 따른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에 있어서는 일괄적인 결론을 내릴 수 없으며, 최근 성별에 따른 생활만족도 차이는 노인 연구에서는 초점이 되고 있다.

남자 노인에게는 건강, 직업에 대한 만족도가 있을 것이고, 여자 노인에게는 결혼 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많은 연관이 있다고 한다.⁵⁸⁾

우리나라의 경우 활동이론을 중심으로 생활만족도를 검증한 홍순혜의 연구결과 남녀간의 차이가 있었다고 한다.⁵⁹⁾

또한 남녀간의 생활만족도 수준에 있어, 김명자의 연구결과에 있어서 남자 노인이 여자노인보다 만족도가 높은 수준이었으며,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고 한다.⁶⁰⁾

그러나 남녀 간에 생활만족도 차이는 성별 자체에 원인이라기 보다는 성별에 따른 사회적 지위에 의한 것으로, 특히 직업에 의한 것으로 보는

57) 윤진, 성인, 노인 심리학, 서울: 중앙적성 출판사, p.212.

58) Berado, F. M.(1980). Decade Review: Family Research. p. 209.

59) 홍순혜, “활동이론에 따른 노인의 생활만족도에 관한 실증적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4, p. 8.

60) 김명자, “노인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20(3). p. 10.

것이 더욱 타당하다고 본다.

기독교 노인을 대상으로한 이영길⁶¹⁾과 박병권⁶²⁾은 남녀 노인간 생활만족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연령(年齡)

연령은 다양한 역할에 사람들을 할당하기 위한 기준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역할이 다양화되는 것이 아니라 평등하지 않게 보상되거나 가치 화될 수도 있기 때문에 노년기에 생활만족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또한 연령은 개인의 활동 유, 무 예상 치로서의 역할을 한다. 연령이 많아질수록 활동은 줄어드는 것으로 생각해 왔다. 그러나 활동 이론가들은 연령에 관계없이 활동이 생활만족도에 관계가 있다고 주장한다.⁶³⁾

생활만족도는 노화에 의하여 감소하는 것이 아니라 역할상실에 의하여 감소하며, 사회적 활동과 상호 대인 관계에 관한 심리적 욕구는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오히려 증가한다고 한다.⁶⁴⁾

자원봉사와 생활만족도를 연구한 김민정에 있어서도 연령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⁶⁵⁾

61) 이영길, “노인의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 청주대학 행정대학원, 석사논문, 1994, p. 32.

62) 박병권, “기독교 노인의 종교성향과 삶의 만족도 연구”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1997. p. 31.

63) 김재인, “후기 성인의 사회교육적 학습 참여와 생활만족도와의 관계 탐구” 1986.

64) 홍순혜, “활동이론에 따른 노인의 생활만족도에 관한 실증적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84, p. 5.

65) 김민정, “노인 자원 봉사활동과 생활만족도 연구”, 한성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논문, 1998. p. 64.

3) 배우자 유. 무

선행연구들을 보면 대부분 배우자 없는 노인들보다는 배우자가 있는 노인들에 있어서 사회 심리적 적응도나 행복감 또는 생활만족도가 더 높고, 사망률이나 자살율은 더 낮으며, 정신 질환도 더 적게 나타남을 보고하고 있다.

특히 여자 노인에게 배우자의 상실은 더욱 고통을 주는데, 이것은 경제적 위협과 아내의 역할 상실, 남편의 사망으로 인한 사회적 지위 상실 등에 기인하며, 이러한 경우 친밀한 친구 관계가 노인의 사기에 도움이 된다. 66)

그러나 필자는 요즘같은 급속도로 변화되어가는 사회속에서 일어나는 황혼이혼이 주는 교훈은 오히려 행복하지 못한 부부 보다는 혼자사는 노인이 더 생활만족도가 높다고 보아진다.

어쨌든, 노인에게 있어서 배우자 상실은 심각한 절망과 고독을 수반하는 상황에 처할 수 있다고 본다. 특히 남자 노인에게 있어서 아내의 상실은 삶을 지탱할 수 있는 힘을 잃게 만드는 요인이 된다고 본다.

4) 가족 관계

노인에게 있어서 그 자녀와의 유대는 배우자의 상실이나 질병등의 이유로도 흔들리지 않는 안정된 특성으로서, 다른 어떤 사회 관계와도 대체될 수 없다. 이러한 경향은 노인들이 자녀들과 거주나 경제를 달리하여 생활하는 경우에도 예외는 아니다. 67)

Medley(1976)는 노인의 전체 생활에 대한 만족감은 가족생활에 대한

66) 이우복, “노인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관한 연구” 충북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1993, p. 8.

67) 최혜경, “노인의 생활만족도 향상을 위한 연구” 이화여자대학원, 석사논문, 1984. p. 11.

만족 여부에 의해 큰 영향을 받는다고 했고, Johnson(1978)는 노인에게 있어 원만한 가족관계는 노인의 복지감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적절한 대처 기술을 조성해 준다고 하였다. 또한 Quion(1983)에 의하면 노년기 부모와 성인기 자녀간의 애정, 의사소통, 부양 만족, 가치관의 일치 등 가족 관계의 질이 높을 때, 노인의 생활만족도도 높다고 하였다. 그리고 결혼한 자녀와 함께 사는 노인이 가장 높은 안정감을 가지며, 노인에게 가장 큰 만족을 주는 것은 그들의 자녀와 손 자녀라고 한다. 68)

최근들어 동서양을 막론하고 노년기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에 대한 분석이 활발하면서 그 중 가족간의 지지는 장기간 계속되는 문제나 갈등을 중재하는 사회·심리적 변수로 일상생활의 적응 및 삶의 질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난 공동의 연구 결과들이다. 가족 관계가 노인의 성공적인 노화를 꾀하도록 도모하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즉 노인의 삶의 질은 노인 자신의 심리적, 환경적 요인과 생활역사 등 복합적인 요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는것이지만 현재의 상태, 특히 가족환경을 인위적으로 개선해 줄 때 충분히 향상 될 수 있다고 본다.

남자 노인의 경우는 경제적으로 무능할 때 자녀로부터 소외를 당하고 있다고 여기며, 이때 매우 낮은 삶의 만족도를 나타냈다. 이러한 노인들은 가족과의 낮은 결속력을 대체할 만한 대안으로 외부 사회기관 및 종교 단체와의 결속을 통해 위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그러한 대안조치 구할 수 없는 저소득층의 노인들은 빨리 생을 마감하고 싶다는 자책감을 가지고 있었다.

68) 김민정, “자원봉사활동과 생활만족도 연구” 한성대학 행정대학원 석사논문, 1998, p. 30.

또한 여자노인들의 경우는 자신의 무능력 보다는 자녀들이 경제적으로 불안하거나 자녀들끼리의 결속력이 낮을 때 더욱 삶의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자신의 편안함 보다는 자녀들이 정서적, 경제적으로 만족할 때 자발적으로 안정감을 느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중산층 이상의 여자 노인들은 여가활동 및 종교활동을 통해 자녀와의 낮은 결속력을 극복한다고 했다.⁶⁹⁾

5) 경제적인 면

경제적인 면의 생활실태와 아울러 수입의 소멸 또는 감소, 물질적 부담 등은 퇴직기의 노인들에 있어서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변인이 되고 있다. 즉 이러한 점들은 가족 내에서 그동안 노인 자신이 부양해 주던 위치에서 부양 받는 위치로의 지위변화를 초래하여 사기가 위축됨은 물론 더 나아가 소외감을 느끼게 하여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⁷⁰⁾

경제적 여건이 좋을수록 만족도가 높아지며, 경제적 상태가 열악할 때는 생활만족도가 낮아진다고 하였는데, 그것은 역할 상실에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은퇴에 따른 수입의 감소 때문이라며, 건강문제, 은퇴 등은 수입이 많은 노인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밝히면서 경제적 요인이 노인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했다.⁷¹⁾

69) 김태현외 4명, “노년기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 18권 1호, 한국노년학회, p. 158.

70) 김행자, “서울 시내 일부노인들의 소외 정도에 관한 조사 연구”, 대한 간호학회지 제4권1호, 1974. p. 195.

71) 장현, 이철우, 전계서, 1996, p. 140.

6) 건강 상태

건강은 노인의 생활만족도에 가장 영향을 주는 요인이라고 생각한다. 60세 이상의 노인들에게 건강악화는 노인들의 생활만족도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변인으로서 건강한 노인들은, 건강치 못한 노인들 보다 그들의 생활에 더 만족하는 것으로 말했다.⁷²⁾

우리나라 옛말에도 건강을 잃으면 천하를 잃는다는 고사가 있다. 노인들에게 있어서 건강은 가장 모든면에 예를 들면, 종교활동, 사회봉사활동, 자녀들과의 관계 등 전반에 걸쳐 영향을 끼친다고 할 수 있다.

선행연구에서도 건강이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끼친다는 데는 같은 결과가 나왔다.

4. 종교와 노인 생활만족도 선행연구

지금까지 많은 학자들은 종교가 노년기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해 연구해 왔다. 그러나 그들의 연구결과는 일치하지 않는다.

기독교 안에서의 교회는 노인들의 삶을 위해서 도움을 주는 많은 유익한 기능을 보유하고 있다. 교회는 서로 다른 연령과 사회적 배경을 지닌 이들이 함께 어울릴 수 있도록 연결시켜 주며 함께 무엇인가 할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제공한다. 이런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다양한 사회적 접촉과 활동들은 노인들에게 활발한 사회적 참여를 유도하며 이웃들로부터 소외되는 것을 감소시켜 준다.

이러한 활동들은 노인들에게 공동체와 거거서 일어나는 모든일에 관심을 갖고 함께 참여하도록 만들며 동시에 그들에게 필요한 사회적 후원을 얻을수 있도록 한다.

72) 김민정, 전게서, 1998, p. 28.

이러한 모든 것들은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노인들의 사기를 분돋아 주며 만족한 삶으로 이끌수 있다.

Wolff는 노인들이 지니고 있는 종교적 믿음, 기도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신앙등은 외로움, 슬픔, 불행같은 노년에 자주 따라오는 많은 문제들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고 주장한다.⁷³⁾

그러나 Larson⁷⁴⁾을 비롯한 여러학자들은 종교가 노인들의 생활만족도에 아무런 영향을 못미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우리 나라도 생활수준의 향상과 의학의 발달로 평균수명이 연장되어 노령인구가 해마다 급속도로 증가하면서 노인 복지에 관심을 가지고 노인들의 생활 만족 도에 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다.

그 중에서도 종교와 관련된 연구 중 일부를 살펴보면, 맹희재⁷⁵⁾의 연구에 의하면 종교는 노인의 정서적 측면에서 막대한 영향력을 주고 노인의 복지 정책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의 고통이나 죽음을 “새로운 삶”이라는 궁극적 희망으로 유도하는 종교적 속성은 노인들에게 자신의 삶이 결코 헛되지 않다는 확신을 갖게 하며 노년기에 따르는 고독을 긍정적으로 수용하도록 자아를 구축해 준다고 했다.

김수연⁷⁶⁾의 연구에 의하면 신앙생활을 함으로써 자신의 기대와 현실과

73) K. Wolff, "Group Psychotherapy with Geriatric Patients in a State Hospital Setting: Results of a Three-Year Study" Group Psychotherapy, 1959, pp. 12: 218-222.

74) Larson R, "Thirty years of research on the subjective well-being of older Americans" J of G. pp. 109-125.

75) 맹희재, "제가 노인의 고독감에 대한 연구,"숙명여자대학원 석사 논문, 1985.

76) 김수연, "도시노인의 생활만족도와 관련변인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원 석사논문, 1992.

의 부조화에서 오는 갈등을 스스로 조절할 수 있고 삶의 만족도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고 했다.

안홍자⁷⁷⁾는 죽음에 대한 태도 조사에서 종교인 집단의 반응은 무종교인 집단에 비해 긍정적이라고 했다.

홍순혜⁷⁸⁾는 노인들의 종교단체 활동이 그들의 삶의 만족도에 매우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고 있다고 했다.

이원규⁷⁹⁾는 종교성과 삶의 만족도의 상관관계에 대한 경험적 연구에 의하면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약간 더 삶에 만족한다고 했다.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만족도는 근소한 차이로 높게 나타났지만, 불만도는 약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종교의 종류별로 나눈 결과 기독교, 천주교, 불교의 순으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고 했다.

이영길은 종교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노인이 그렇지 못한 노인보다 높은 생활 만족도를 나타 내고 있다.⁸⁰⁾

박병권은 기독노인들의 종교성향과 생활 만족도에 대한 상관 관계 분석에서 내재적인 종교성향이 생활 만족도와 상관성이 높고, 외향적인 성향이 만족도가 낮게 측정되었다.⁸¹⁾

박미령은, 종교의 유무별로 노인의 소외감을 분석한 결과 종교가 있는

77) 안홍자, “노인생활에 영향을 주는 요인과 그들의 생활적응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원 석사논문, 1975.

78) 홍순혜, “활동이론에 따른 한국노인의 생활만족도에 관한 실증적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1984.

79) 이원규, “종교의 사회 통합 기능에 대한 경험적 연구, 성곡논총, 제20집, 1989.

80) 이영길, “노인의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 -종교 및 사회활동 참여를 중심으로-, 청주대학행정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4.

81) 박병권, “기독교 노인의 종교성향과 삶의 만족도 연구”,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1997, p. 40.

노인이 종교가 없는 노인보다 소외감을 적게 느낀 것으로 나타났다.⁸²⁾

김태현⁸³⁾은 종교에의 지속적인 참여가 삶에 대해 보다 긍정적으로 수용할 수 있게 도와주기 때문에 종교생활을 하는 노인의 생활만족도가 더 높다고 하였다.

김명자⁸⁴⁾, 이우복⁸⁵⁾의 연구도 이와 같은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그러나 한상호⁸⁶⁾는 천주교 신자를 중심으로 종교가 노년기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결과 노인이 종교참여도가 노년기 삶의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기대와는 달리 별로 삶의 만족을 나타내지 못한 결과가 나타났다.

82) 박미령, "가족내 노인의 소외감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85.

83) 김태현, "노년기의 생활만족도 연구", 성신연구 논문집, 23권, 성신여자대학교, 1986.

84) 김명자, "노인의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 대한 가정학회지, 20권 3호, 대한가정학회, 1982.

85) 이우복, "노인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관한 연구" 충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3.

86) 한상호, "종교가 노년기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학술진흥재단, 1991.

제Ⅲ장 연구 방법

제1절 조사 도구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지역, 성별, 연령, 자녀수, 동거형태(독신, 부부), 건강 상태, 생활수준 항목으로 구성했다.

노인의 종교성에 관한 연구에 있어 종교 참여도의 다차원적인 연구가 필요하므로 본 연구에서는 Ainloy Smith가 분류한 종교 참여도를 김수연이 선행연구⁸⁷⁾로 사용한 것을 본인이 재인용, 몇가지 항목을 기독교적 신앙고백을 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생활 만족도 측정도구는 윤진⁸⁸⁾의 “노인생활만족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감정부분이 8개 문항(긍정적인 부문4개, 부정적 부문4개) 경험부분의 12개 문항(긍정적 부문6개, 부정적 부문6개) 등 모두 20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측정기준은, 긍정적 문항에서 예 (5점),아니오(0점)으로 측정하고 부정적 문항에서 아니요(5점) 예(0점)으로처리한다.

신뢰도와 타당성 은 이미 선행연구에서 입증되었다.

제2절 자료 수집 및 처리

본 연구는 서울시와 근교에 있는 교회에 다니는 기독교인으로 60세 이상된 노인을 대상으로 하였다.

설문조사 실시는 1999년 4월 20일부터 5월 20일 까지이다.

87) 김수연, “노인 종교 참여도와 관련변인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 제8집(1988), pp. 55~67.

88) 윤진, “노인의 생활만족도 척도 연구” 한국심리학회 초록집, 한국 심리학회, 1982.

설문조사는 해당되는 각교회의 당회장의 협조와 사전 교육을 받은 신학대학생들이 다니는 교회의 노인을 대상으로 하고 그리고 복지관을 이용하는 기독교 노인이 주로 설문 대상이 되었다.

총 360 부가 배부되었고 253부가 회수되어 회수율 70%였고, 7부는 불량으로 제외되어 총 246부가 연구자료에 분석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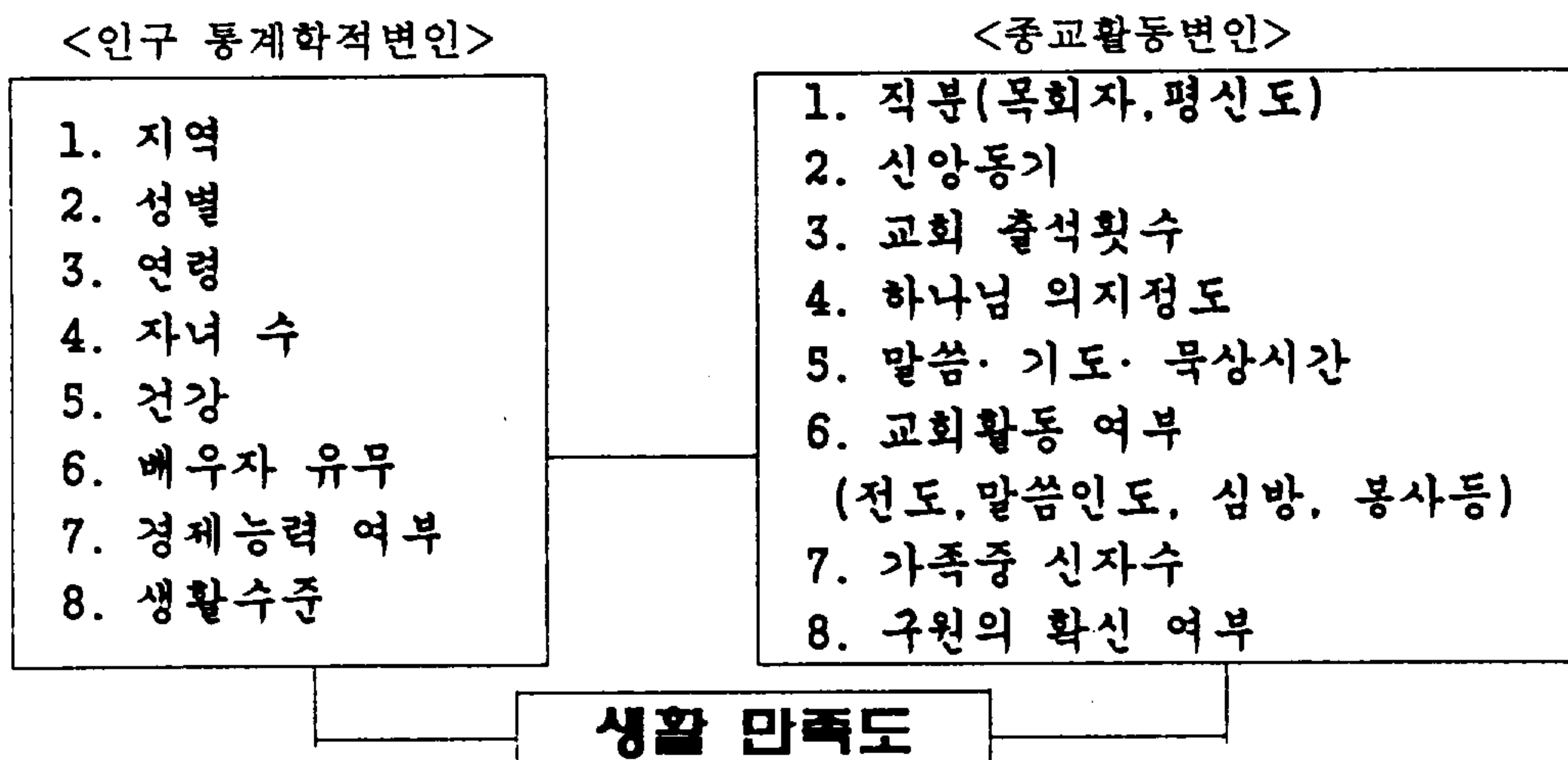
자료처리는 수집된 자료를 S.A.S (Statistical Analysis System)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전산 통계 처리하였다.

1) 조사대상자의 인구 통계학적인 변인과 종교활동 관련요인은 빈도와 백분율을 구하여 산출하였다.

2) 인구 통계학적인 변인에 따른 생활만족도와 종교활동 관련요인에 따른 생활만족도는 평균, 표준편차, T-test, 분산분석(ANOVA), DUNCAN을 사용 하였다.

제3절 연구 모형

본 조사연구의 모형은 다음과 같다.



<그림-1> 연구모형

1) 종속변인

본 연구논문의 종속변인은 “생활만족도”이다.

2) 독립변인

본 연구의 독립변인은 “인구통계학적 변인”의 8개 문항과 “종교활동”에 있어서 8개 문항으로 구분하였다.

제Ⅳ장 결과 및 분석

제1절 기독교 노인의 일반적 특성

<표1>지역별

항 목	구 분	빈 도(명)	비 율 (%)
지 역	서울·경기	235	95.5
	지 방	9	4.0
계		246	100

<표1>에서와 같이 기독교 노인들의 거주 지역에 따라 수도권과 지방으로 대상을 구분하기로 했으나 지방에 거주하는 노인들의 설문을 하는데 시간적, 거리상 하는데 어려운 점이 있어 특히 지방을 대상으로 많이 하지 못했다.

주로 수도권의 기독교 노인을 대상으로 하게되었다.

<표 2> 성별

항 목	구 분	빈 도(명)	비 율 (%)
성 별	남	94	38.4
	여	151	61.6
계		245	100

<표2>에 나타난것과 같이 기독교 노인들의 성별에 따라서는 남자는 94명(38.4%)이 응답하였고, 여자는 151명 (61.6%)으로 남자노인 보다 여자 노인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교회안에서의 여자노인의 빈도가 높음을 알 수 있다.

<표 3 > 연령

항 목	구 분	빈 도(명)	비 율 (%)
연 령	60 ~ 65세	102	42.5
	66 ~ 70세	49	20.4
	71 ~ 75세	45	18.8
	76세 이상	44	18.3
계		240	100

<표3> 응답자의 연령별 분포는 60 ~65세가 102명(42.5%), 66~70세가 49명(20.4%), 71세~75세가 45명 (18.8%), 76세 이상 44명(18.3%)으로 주로 60-65세의 기독교 노인들이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교회 안에서의 연령이 높은 노인들의 분포가 많지 않았다고 볼수 있다.

<표 4 > 자녀 수

항 목	구 분	빈 도(명)	비 율 (%)
자 녀	1명	15	1.2
	2명	60	4.9
	3명	54	24.6
	4명	44	22.1
	5명	36	14.8
	6명	17	7.0
	7명 이상	19	6.9
계		244명	100%

<표 4>에 나타난 슬하에 자녀수는 60대 초반이 많은 대상이 되었기에 주로 자녀수가 그렇게 많지 않았고 2명-4명이 가장 많았다.

<표 5 > 배우자 유무

항 목	구 분	빈 도(명)	비 율 (%)
배우자	혼자	199	44.5
	부부	136	55.5
계		245	100

<표 5>에 나타난 결과 혼자 사는 기독교 노인이 199명(44.5%), 부부가 함께 사는 기독교 노인이 136명(55.5%)으로 나타났다.

이는 교회안에서도 여성 노인의 비율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으며, 실제 우리나라 여성 노인이 남성 노인 보다 높다.

우리나라 65세 이상의 여성노인의 수가 남성노인의 수 보다 1.7배 많으며, 유배우율은 남자 노인 82.6%, 여성 노인 26%로서 여성노인의 3/4은 배우자 없이 독신으로 생활하고 있다. (통계청 1995)

또한 여성노인의 우리나라 빈곤계층의 다수를 점유하는 집단 가운데 하나이며, 출산과 육아, 가사 등으로 인한 여성 특유의 건강 문제, 낮은 교육 수준과 사회 참여로 가정과 사회로부터 소외되어 심각한 노후 적응 문제를 경험하고 있다. 89)

그러나 이들의 이러한 취약점이 기독교에 대한 종교적 신념과 열성으로 나타진다고 볼 수 있다.

<표 6 > 생활비 충당

항 목	구 분	빈 도(명)	비 율 (%)
생활비	자녀들이 준다	95	38.2
	내가 해결한다	135	54.9
	국가에서	17	6.9
계		246명	100

<표 6>에서와 같이 기독교 노인들의 생활비 충당은 주로 자신들이 해결하고 있다고 135명(54.9)이 응답했다.

이는 응답한 과반수가 해당되는 것으로 아직 경제적 능력이 있는 연령층이라 볼 수 있고, 또한 기독교적 가르침과 윤리에 따라 일할 수 있을 때 까지는 열심히 일을 한다고 볼 수 있다.

89) 정혜정, "여성노인의 스트레스와 심리적 적응에 관한 연구", 1998, 한국노년학 제18권 3호, 노년학회, p.74.

자녀들이 준다고 응답한 노인들은 95명(38.2%) 으로 이는 일반적 사회적으로 우리나라 노인들은 직접 벌어들이는 수입이 없기 때문일 것이고 높은 연령과 건강상 일할 수 있는 환경이 되지 못한 때문일 것이다.

국가에서 준다는 것은 17명(6.9%)이 였는데, 주로 영세민이라 볼 수 있는데, 지역 노인복지관을 대상으로 한 응답자가 주로 대상이 되었다.

<표 7 > 생활수준

항 목	구 분	빈 도(명)	(비 율 (%))
생활수준	매우 어려운 편	13	5.3
	어려운 편	64	26.1
	잘사는 편.	168	68.6
계		224명	100%

<표 7>에서와 같이 기독교 노인들의 생활수준에서는 잘 사는 편이라고 응답한 대상이 168명(68.6%), 어려운 편 64명(26.1%), 매우 어려운 편 13명(5.3%), 이였다.

여기서 기독교 노인들의 생활수준은 자신들의 주관적인 생활수준이라 어려워도 그렇지 않다고 보는 것이 기독교인들의 특성이기에 여기서 생활수준은 대체도 높게 나타났다.

< 표8 > 건강정도

항 목	구 분	빈 도(명)	비 율 (%)
건강정도	건강하다	78	31.7
	보통이다	112	45.5
	건강치 못하다	56	22.8
계		246명	100%

기독교 노인들의 건강상태는 건강하다 78명 (31.7%), 보통이다 112명 (45.5%), 건강치 못하다 56명(22.8%) 이였다.

대체로 기독교 노인들의 건강정도는 활동하는데는 어려움이 없다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주로 교회 출석하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이다.

제 2절 종교활동의 관련요인

<표 9 > 직분

항 목	구 분	빈 도(명)	비 율 (%)
직 분	교역자	16	6.5
	장로	29	11.8
	집사·권사	138	56.1
	직분없음	63	25.6
계		246	100

<표9> 기독교 노인들의 종교활동하는데 있어서 직분별로 교역자 (주로 남녀 목사, 전도사) 는 16명 (7.1%), 장로 25명(11.2%), 집사·권사 125명 (55.8%) 이였고 직분이 없는 노인이 58명 (25.9)이였다.

주로 권사·집사의 노인들이 응답대상이 많았고, 노인들의 연륜상 볼 때, 이런 직분이 가장 많은 비율이 된다고 본다.

<표 10 > 신앙의 동기

항 목	구 분	빈 도(명)	비 율 (%)
동 기	모태신앙	66	26.8
	타인의 권유	84	34.1
	자원해서	59	24.0
	자녀들의 권유	37	15.0
계		244	100

<표10>과 같이 기독교 노인들의 신앙의 동기는 모태신앙(부모영향) 66

명 (26.8%), 타인의 권유 84명(34.1%), 자원해서 믿은자가 59명(24.0%), 자녀들의 권유로 믿은 노인이 37명(15.0%) 이었다.

여기서 타인의 권유로 믿은노인들 중에는 남자노인은 부인의 권유, 여자노인은 남편의 권유도 포함되었다.

주로 타인의 전도로 신앙을 가지게 되었으며, 모태신앙과 자녀의 권유, 자원 순으로 나타났다.

<표11 > 교회 출석 회수

항 목	구 분	빈 도((명)	비 율 (%)
출석 회수	주일날	106	43.4
	주일 · 수요일	55	22.5
	주일 · 수요일 · 새벽	83	34.0
계		244	100

<표11>에서 기독교 노인의 종교 참여도를 교회 출석회수로 분류해볼 때 주일만 참석하는 노인이 106명 (43.4%), 주일 · 수요일 참석하는 노인은 55명(22.5%), 주일 · 수요일 · 새벽까지 참석하는 노인이 83명(34.%)이 응답하였다.

기독교인의 주일성수는 당연한것이라고 볼 때 여기서 열심히 참여하는 노인과 기본적인 주일성수만하는 노인들의 차이를 볼 수 있다.

물론 종교 참여도로 신앙 성숙도를 논할 수 없는 것은 이들은 건강상 참여할 수 없는 연령층이기 때문이다.

<표12 > 하나님 의지정도

항 목	구 분	빈 도	비 율 (%)
하나님 의지정도	정말 그렇다	159	64.9
	대체로 그렇다	78	31.7
	그렇지 않다	9	3.7
계		246	100

<표12>에 나타난 것과 같이 외롭거나 힘들 때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가에 물음에 정말 그렇다고 응답한 기독교 노인이 159명(64.9%)으로 나타났고, 대체로 그렇다에 78명(31.7%),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노인이 9명(3.7%)으로 나타났다.

기독교 노인들의 하나님 의지는 매우 높은 응답자의 96.6%가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기독교 안에서도 형식적인 신앙생활과 외향적인 종교성향의 여러 부류가 있다는 것이다.

<표13 > 기도 · 말씀청취 · 묵상 시간

항 목	구 분	빈 도(명)	비 율 (%)
시 간	많이 있다	99	40.7
	조금 있다	131	53.3
	전혀 없다	16	6.5
계		246	100

기독교 노인들의 일과중 기도 · 말씀청취 · 묵상시간이 어느정도 있는가에 질문에 많이 있다고 응답한 노인이 99명(40.7%), 조금있다 131명(53.3%), 전혀 없다 16명 (6.5%) 로 나타났다. 대체로 경건의 시간을 보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14> 가족 중 신자

항 목	구 분	빈 도(명)	비 율 (%)
가족 중 신 자	온가족 모두	136	55.3
	가족 중 일부	78	33.3
	본인만	28	11.4
계		246	100

<표14>에서와 같이 가족중 신자를 구분하여 질문한 결과 온가족이 신앙생활을 한다면 136명(55.3%), 가족중 일부만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78명(33.3%), 본인만 믿는 경우가 28명(11.4%) 이었다.

대체로 가족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가족을 가진 노인들이 응답자의 88.6%의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대다수가 온가족이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였다.

<표15> 교회 활동여부

항 목	구 분	빈 도(명)	비 율 (%)
교회활동	그렇다	102	41.5
	가끔 한다	56	24.4
	전혀 못한다	84	34.1
계		246	100

<표15> 지금 교회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가에 질문에 그렇다고 응답한 노인이 96명(42.9), 가끔하고 있다에 55명(24.6%), 전혀 못한다고 응답한 노인이 73명(32.6%) 으로 나타났다.

열심히 활동하는 노인과 전혀못하는 노인들의 차이가 나타났다.

이것은 한 부분은 교역자를 포함해서 직분을 가지고 아직까지 활동하고 있는자가 많다는 것이고, 후자는 교회내에서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못한다거나(은퇴), 건강상 스스로 할수 없는 경우가 있을 것이다.

제 3절 일반적 배경요인과 생활만족도

<표18> 연령별 생활만족도

구 분	평균	F 값	DUNCAN -Grouping
60 ~ 65세	3.383	3.18 (P=0.0249)	A
66 ~ 70세	2.600		B
71 ~ 75세	3.040		A B
76세 이상	2.784		A B

<표18> 은 연령별 생활만족도는 60-65세가 5점 만점에 평균 3.383으로 가장 높았고, 그다음으로 71세-75세가 3.040으로 나타났고, 76세 이상이 2.784로 나타났고 66세-70세의 기독교 노인이 가장 생활만족도가 낮았다.

유의수준 5%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표19> 성별에 따른 생활만족도

구 분	평 균	F 값
남	3.144	0.56 (P=0.454)
여	2.984	

<표19>에 나타난 결과와 같이 성별에 따른 남녀의 생활만족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표20> 자녀수에 따른 생활만족도

구 분	평 균	F 값	DUNCAN -Grouping
없음	2.167	2.74 (P=0.0034)	A B
1명	1.922		A B
2명	3.600		A
3명	3.020		A B
4명	2.788		A B
5명	2.943		A B
6명	3.481		A
7명	2.154		A B
8명	4.500		A
9명	4.500		A
10명	0.500		B

- <표20>은 자녀수에 따라서도 생활만족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표21> 배우자 유무별 생활만족도

구 분	평 균	F 값
혼자	2.790	4.44
부부	3.228	(P=0.0362)

<표21>에서와 같이 배우자 유무별 생활만족도는 혼자사는 기독교 노인이 2.790으로 나타났고, 부부가 함께 사는 기독교 노인이 3.228로 나타났다.

결과로 보아 부부가 함께 사는 기독교 노인의 생활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는 배우자 유무가 생활만족도를 결정하는 요인이 되었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표 22> 생활비 충당별 생활만족도

구 분	평 균	F 값	DUNCAN -Grouping
자녀들이 준다	2.892	4.98 (P=0.0076)	A
내가 해결한다	3.264		A
국가에서 준다	2.051		B

<표 22>에 나타난 바와같이 생활비를 스스로 해결하는 기독교 노인의 생활만족도가 가장 높은 3.264이고, 그다음으로 자녀들로부터 충당하는 노인이 2.892, 가장 낮게 나타난 것은 국가에서 지원하는 것을 받고 살아가는 노인의 생활만족도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표 23> 생활수준

구 분	평 균	F 값	DUNCAN -Grouping
매우 어려운 편	1.679	20.59 (P=0.0001)	B
어려운 편	2.226		B
잘 사는편	3.441		A

<표 23>에서와 같이 기독교 노인들의 생활수준이 잘 산다고 주관적으로 응답한 노인의 생활만족도가 가장 높은 3.441로 나타났다. 어려운 편과 매우 어려운편이 각각 2. 226과 1.679로 나타나 이는 서로 차이가 있었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표 24> 건강정도에 따른 생활만족도

구 분	평 균	F 값	DUNCAN -Grouping
건강하다	4.067	36.36 (P=0.0001)	A
보통이다	2.849		B
건강치 못하다	1.983		C

<표24>에서는 기독교 노인의 건강정도 따른 생활만족도가 건강하다고 응답한 노인의 생활만족도가 평균 4.067로 가장 높았고, 그다음으로 보통이라고 응답한 기독교 노인이 2.849이고, 건강치 못하다고 응답한 기독교 노인의 생활만족도는 가장낮은 1.983으로 나타났다.

결과로 보아 노인들의 생활만족도에 건강이 요인이됨을 알 수 있다.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제4절 종교활동 요인과 생활만족도

기독교 노인중 직분별로 생활만족도를 분류해본 결과 교역자가 5점 만점에 4.8898점, 장로 4.0714점, 집사·권사 3.4352점, 직분이 없는 노인이 1.6909점으로 나타났다.

<표 25> 직분별 생활만족도

구 분	평 균	F	DUNCAN -Grouping
교역자	4.8898	38.59 (p = 0.0001)	A
장 로	4.0714		A B
집사·권사	3.4352		B
직분없음	1.6909		C

<표 25>는 교역자가 가장 높은 생활만족도를 보였다. 이러한 차이는 0.001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였다. 이는 결국 교회나 사회에서 자신의 맡은 직분에 따라 활동이 많은가에 따라 생활 만족도가 높아진다고 볼 수 있다.

<표 26> 신앙의 동기에 따른 생활만족도

구 분	평 균	F	DUNCAN -Grouping
모태신앙	3.908	11.54 (p = 0.0001)	A
타인의 권유	2.518		C
자원해서	3.098		B
자녀들의 권유	2.572		C

<표 26>은 기독교 노인들의 신앙을 가진 동기에 따라 생활만족도는 모태신앙 3.908점, 타인의 권유 2.518점, 자원해서 믿은 노인이 3.098점, 자녀들의 권유로 믿은 노인이 2.572점으로 나타났다.

즉 모태 신앙이 생활만족도가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자원해서 믿은 노인이었다.

타인의 권유와 자녀들의 권유로 믿은 노인의 생활만족도는 별 차이가 없었다.

<표 27> 교회 출석횟수에 따른 생활만족도

구 분	평 균	F	DUNCAN -Grouping
주일날	2.263	33.96 (p = 0.0001)	C
주일·수요일	3.150		B
주일·수요일·새벽	3.996		A

<표 27>은 종교 집회 참여횟수에 따라 만족도를 분류한 결과, 주일·수요일·새벽까지 열심히 모임에 참여하는 노인의 생활만족도가 3.996로 가장 높았고 그다음 수요일, 주일만 참여의 만족도가 3.150이고, 주일만 주로 참여하는 경우의 생활만족도 2.263으로 나타남으로 이들 가운데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여기서 주일만 참여하는 경우는 기독인으로서 가장 기본적인 것 즉 주

일 성수는 당연히 해야하는 것으로 보고 질문을 했던 것이다.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P < 0.01$)

<표 28> 하나님 의지정도에 따른 생활만족도

구 분	평 균	F	DUNCAN -Grouping
정말 그렇다	3.545	28.81 ($p = 0.0001$)	A
대체로 그렇다	2.218		B
그렇지 않다	1.194		C

<표 28> 기독교 노인들에게 있어서 외롭거나 힘들 때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는가에 질문에 따라 정말 그렇다고 응답한 노인의 생활만족도가 가장 높은 3.545로 나타나고, 대체로 그렇다고 응답한 노인의 생활만족도가 2.218로 그 다음 순으로 나타나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노인의 생활만족도 (9명중) 가 가장 낮은 1.194였다.

기독교 노인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형식적인 교회만 다니는 노인들도 포함되었다는 것을 전제로 이들의 생활만족도는 가장 낮았다.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P < 0.01$)

<표 29> 기도·말씀청취·묵상 시간을 하는가에 따른 생활만족도

구 분	평 균	F	DUNCAN -Grouping
많이 있다	3.904	37.21 ($p = 0.0001$)	A
조금 있다	2.606		B
전혀 없다	1.219		C

<표 29>는 신앙생활중 기도·말씀청취·묵상시간을 많이 가지는 노인과 전혀 가지지 않는 노인과의 생활 만족도는 현저한 차이가 있었다.

많은 여가 시간을 기도, 말씀청취, 묵상시간을 가지는 기독교 노인들의

생활만족도가 3.904로 나타났고, 조금가지는 노인의 생활만족도가 2.606로 나타났고, 전혀 가지지 못하는 노인이 1.219로 생활만족도를 보였다.

이는 노인의 정서적 안녕을 신앙심을 고취하는데서 매우 만족한 삶의 만족을 보이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김성혜⁹⁰⁾는 노인의 자아 존중감이 높을수록, 스트레스 관리를 잘 할수록 건강 증진 행위 이행이 높고, 노인의 삶의 만족도가 높다고 했다.

이병권⁹¹⁾도 기독교 노인들의 종교 성향과 삶의 만족도와의 관계를 연구하면서 내재적이거나 친종교적 성향을 가진 노인들이 외향적이거나 비종교적 기독교 노인보다 삶의 만족도가 높았다고 했다.

<표 30> 믿는 가족별 분류에 따른 생활만족도

구 분	평 균	F	DUNCAN -Grouping
온 가족 모두	3.699	34.23 (P=0.0001)	A
가족 중 일부	2.391		B
본인만	1.723		C

<표 30>은 가족중 온가족 모두가 신앙생활을 하는 노인의 생활만족도가 3.699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다음으로 가족 일부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족을 가진 노인의 생활만족은 2.391로 나타났고, 본인만 믿는 노인의 생활만족도는 1.723 나타났다.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함이 검증 되었다.

특히 노년기에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으로 가족간의 지지와 가족 결속력이라는 것을 볼 때 온가족이 한 신앙안에서 같은 가치관과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 노인들에게는 삶의 의미를 주는

90) 김성혜, “노인의 건강증진 행위와 삶의 만족도와의 관계 연구”, 고려 대학원 석사논문, 1993.

91) 이병권, “기독교 노인의 종교 성향과 삶의 만족도 연구” 고려대학원 석사논문, 1997, p. 21.

것 만큼 기쁜일일 것이다.

<표 31> 종교활동과 생활만족도

구 분	평 균	F	DUNCAN -Grouping
그렇다	4.0711	71.25	A
가끔 한다	3.4464		B
전혀 못한다	1.7413		C

<표 31>은 교회에서 지금도 교회활동(예를 들면 전도, 말씀인도, 봉사 등)을 하고 있는가를 묻는 질문에 그렇다고 응답한 노인의 생활만족도가 가장 높은 3.952로 가장 높은 생활만족도가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가끔 활동을 하고 있다는 노인의 생활만족도가 3.274로 나타났다, 여러 가지 이유상 하지 못하는 노인의 생활만족도가 가장 낮은 1.757로 나타났다.

이들은 서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따라서 노인의 종교활동과 생활만족도는 상관관계가 있으며, 종교활동을 열심히 하는 노인일수록 높은 생활만족도를 나타냄으로, 종교활동은 생활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이 미친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표 32> 교단별 기독교 노인의 생활만족도

구 분(빈도)	평 균	F	DUNCAN -Grouping
장로교(197명)	3.139	1.57 (p = 0.1454)	A B
침례교(7명)	4.214		A
성서선교회(6명)	3.860		A
초교파교회(7명)	3.821		A
감리교회(10명)	2.758		A B
성결교회(11명)	3.318		A B
기 타(10명)	2.209		A B

교단별 생활만족도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표 33> 구원의 확신별 생활만족도

구 분	평균	F	DUNCAN- Grouping
그렇다	3.397	79.99	A
잘 모르겠다	1.230	(P = 0.0001)	B

기독교 노인들에게 지금 죽는다 해도 믿음으로 구원 받을수 있는가에 질문에 그렇다고 응답한 노인의 생활만족도는 3.397로 매우 높은 생활만족도를 나타내고 있었다.

잘모르겠다고 응답한 노인, 즉 구원의 확신이 없는 노인의 생활만족도는 1.230으로 나타났다.

구원의 확신이 있는 노인과 그렇지 않는 노인의 생활만족도에는 많은 차이가 나타남으로 신앙과 삶의 만족에는 상관 관계가 있음이 채택되었다.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제5절 소 결론

1. 일반적 배경 요인

주로 서울 경기지역에 있는 교회와 사회복지관에 다니는 기독교 노인을 대상으로하여 조사한 결과 성별은 여성노인이 61.6%, 남성노인이 38.4%가 참여하였다. 총 246명이 연구대상이 되었다.

연령은 주로 60-65세가 42.5%로 가장 많이 참여하였고, 76세 이상이 2.7%로 가장 적었다.

자녀수는 주로 2-4명이 가장 많은 가정으로 나타났고, 배우자 유무는 혼자 사는 기독교 노인이 55.5% 부부노인이 44.5%, 혼자사는 노인의 수가 더 많았다.

생활비 충당은 자신들이 해결한다가 54.9% 로 아직 연령으로 보건데 생활능력이 있다고 보아진다.

생활수준은 매우 어려운편이 5.3%에 비해, 잘 사는편 응답이 69.6%로 자신들의 경제수준에 만족할만 하다고 하는 주관적인 생각일 것이다.

건강정도는 건강하다와 보통이다가 건강치 못한 노인의 수보다 78.5%로 응답한 것을 보면 그들은 아직 활동능력이 있다고 본다.

2 종교활동 관련요인

교회의 직분별로 구분한 결과 교역자(남여포함) 6.5%, 장로11.2%, 권사.집사가 56.1%로 가장 많이 참여 하였다.

그러나 직분이 없는 노인도 25%가 참여 대상이 되었다.

믿음의 동기는 타인의 권유가 가장 많은 비율이고, 그다음으로 모태 신앙, 자원, 자녀들의 권유의 순으로 응답되었다.

그러므로 교회는 전도의 사명을 게을리 하면 안된다고 사료된다.

교회출석은 주일날만 참여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43%), 주일.수요일 까지 출석하는 경우가 55%, 새벽까지 모든 집회에 열심히 출석하는 경우가 34%의 비율이었다.

이는 아마 기독교 노인들이 매 집회마다 참여할 수 없는 신체적 불편함도 배제할 수 없다.

쓸쓸하거나 외로울 때 하나님을 더욱의지하는 경우가 64.9%로, 대체로

하나님을 의지한다에 31.7%, 그렇지 않다는 응답 4.0%로 나타나 대체로 그들의 신앙심은 매우 고무적이라고 볼 수 있다.

여기서도 종교적 성향을 볼 수 있는데, 내재적 종교성향과 외향적 종교성향이 생활 만족도에 영향을 끼치는데 차이가 있다고 했다.⁹²⁾

기도, 말씀청취, 묵상시간이 전혀 없다에 7.1%에 비해 가지고 있다에 9.1% 높은 비율로 대체로 여가시간을 많이 할애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대체로 온가족이 모두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며 55.3%, 가족중 일부만 신자인 경우가 31.7%, 본인만 신자라고 응답한 기독교 노인이 9.4%였다.

지금도 교회에서 신앙활동(전도, 말씀인도, 봉사, 구제등)을 하고 있는 기독교 노인이 41.5%, 가끔하고 있다고 응답이 24.4%, 전혀 못한다는 응답이 34.1%였다.

교단별로는 장로교로만 통일시켰는데 여기에는 통합, 합동, 기독을 하나로 통일 해서 통계를 하다보니 장로교 77.2%로 가장 많이 참여하였다.

필자가 가장 밝히고자하는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는가를 질문하였을 때, 확신이 있는 노인이 83.1%로 매우 높은 수준으로 응답되어 기독교 신앙생활에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 할 수 있다.

구원의 확신이 없는 노인이 16.9%로 이들에 대한 대책이 요구된다.

3. 일반적 배경 요인과 생활만족도

기독교 노인의 연령은 60세-65세가 생활만족도가 가장 높았고 (3.383), 66세에서 70세가 가장 낮게 측정되었다. (2.600)

92) 박병권, “기독교 노인의 종교성향과 삶의 만족도 연구”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1997, p. 40.

배우자 유.무별로는 혼자사는 기독교 노인(2.790) 보다 배우자가 있는 기독교 노인의 생활만족도(3.228)가 높게 측정되었다.

이는 여러 선행연구에서와 마찬가지로 나타나므로 배우자 유.무가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밝혀졌다.

생활비를 스스로 해결한다고 응답한 기독교 노인의 생활만족도가 가장 높았고(3.264), 그 다음으로 자녀들이 준다고 응답한 노인의 생활만족도(2.892), 국가에서 받아서 산다고 응답한 노인의 생활만족도가 가장 낮았다.(2.051)

생활수준에서 잘 사는편이라고 응답한 기독교 노인의 생활만족도가 가장 높았고(3.441), 어려운 편과 매우 어려운편이 각각 2.226과 1.679로 나타나 잘산다고 주관적으로 응답한 노인의 생활수준이 가장 생활 만족도가 높았다.

신체적으로 아직 건강하다고 응답한 기독교 노인의 생활만족도가 가장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4.067), 보통이다와 건강치 못하다고 응답한 노인의 생활만족도가 각각 2.849, 1.983으로 측정되었다.

4. 종교활동 요인과 생활만족도

교회에서의 직분별로 만족도를 측정하였는데 교역자가 가장높은 생활만족도를 나타내었고(4.890), 그다음으로 장로(3.803), 집사.권사가 (3.283), 직분이 없다고 응답한 노인 (1.680) 순으로 측정되었다.

신앙의 동기는 모태신앙이 가장 생활만족도가 높았고 (3.908), 그다음이 자원에서 응답한 기독교 노인(3.098), 타인의 권유로 신앙을 가진 노인(2.518)과 자녀들의 권유(2.572)의 순으로 생활만족도가 측정되어 기독교 가정의 신앙으

로 인한 가족 결속력과 화합으로 인한 생활만족도를 알 수 있다.

교회 출석횟수로 만족도를 측정한 결과 주일날만 출석하는 경우 보다 (2.263)는, 수요일까지 새벽까지 (3.996) 집회에 많이 참여 할수록 만족도가 높게 측정되었다.

외롭고 쓸쓸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정도에 따라 정말 그렇게 의지하며 산다고 하는 응답의 기독교 노인의 생활만족도가 가장 높게(3.545) 측정되었고, 그저 의지하지 않고 교회만 다니는 노인의 생활만족도는 가장 낮았다.(1.194)

기도, 말씀청취, 묵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응답한 노인의 생활만족도가 가장 높았고(3.904), 그런 시간을 갖지 노인이 가장 낮게 측정되었다.(1.219)

온가족이 모두 기독교 가정인 노인의 생활만족도(3.699)가 본인만 교회에 다니는 노인보다(1.723) 높게 나타나, 종교는 온가족을 하나의 신앙으로 화합하게 하고 노인의 생활만족도를 높여주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교회활동 즉 심방, 전도, 봉사, 구제, 말씀인도 등을 열심히 하고 있다는 노인의 생활만족도가 전혀하지 못하고 있다고 응답한 노인(1.757)보다 만족도가 높게 나타나(3.952), 이는 노인에게 있어서 종교활동이 생활만족도의 요인이 됨을 알 수 있다.

기독교 신앙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러므로 신앙고백은 믿음의 고백과 확신은 아주 중요하다. 확신이 있다고 응답한 기독교 노인(3.397)보다 확신이 없어 잘 모르겠다고 응답한 노인(1.230) 보다 높게 나타나 믿음의 확신과 고백이 기독교 노인의 생활만족도의 한 요인임을 알 수 있다.

<표 34> 요인별 생활만족도

구분	항목	평균
지역	서울·경기	3.012
	지방	3.591
성별	남	3.144
	여	2.984
연령	60 ~ 65세	3.383
	66 ~ 70세	2.600
	71 ~ 75세	3.040
	76세 이상	2.784
배우자 유무	혼자	2.790
	부부	3.228
생활비 충당	자녀들이 준다	2.892
	내가 해결한다	3.264
	국가에서 준다	2.051
생활 수준	매우 어려운 편	1.679
	어려운 편	2.226
	그런대로 사는 편	3.441
건강 정도	건강하다	4.067
	보통이다	2.849
	건강치 못하다	1.983
직분별	교역자	4.890
	장로	3.803
	집사·권사	3.283
	직분없음	1.680
신앙동기	모태신앙	3.908
	타인의 권유	2.518
	자원해서	3.098
	자녀들의 권유	2.572
교회출석	주일날	2.263
	주일·수요일	3.150
	주일·수요일·새벽	3.996
하나님 의지정도	정말 그렇다	3.545
	대체로 그렇다	2.218
	그렇지 않다	1.194
경건의시간	많이 있다	3.904
	조금 있다	2.606
	전혀 없다	1.219
믿는가족수	온 가족 모두	3.699
	가족 중 일부	2.391
	본인만	1.723
종교활동	그렇다	3.952
	가끔 한다	3.274
	전혀 못한다	1.757
구원의 확신	그렇다	3.397
	잘 모르겠다	1.230

<표 35> 기독교 노인의 생활만족도

번호	문항	자신의 평가		예	아니오	평 균	표준편차
1	나는 요즘 하늘을 나는 것처럼 기분이 좋다	99 (41.1)	142 (58.9)	2.054	2.441		
2	나는 일상 생활에서 원기가 왕성하다	116 (48.1)	125 (51.9)	2.407	2.465		
3	내가 살아온 일생을 회고해 보면 일생을 이렇게 살아온데 대체로 만족한다	157 (64.9)	85 (35.1)	3.244	2.503		
4	내 일생에서 지금이 가장 행복하다	131 (53.5)	114 (46.5)	2.673	2.392		
5	나는 따분하고 지루하게 느끼고 있다	78 (32.4)	163 (67.6)	3.382	2.499		
6	나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는 거리감과 외로움을 느낀다	75 (31.1)	166 (68.9)	3.444	2.344		
7	나는 우울하고 기분이 언짢다	54 (22.4)	187 (77.6)	3.88	2.320		
8	일생을 살고나서 뒤돌아 보니 나의 인생행로가 이렇게 된데 대하여 가슴이 아프다	105 (43.2)	138 (56.8)	2.84	2.089		
9	나는 나이든 지금도 젊은 시절과 마찬가지로 행복하다	150 (61.2)	95 (38.8)	3.061	2.482		
10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은 옛날과 마찬가지로 지금도 흥미롭고 재미있다	144 (59.0)	100 (41.0)	2.951	2.441		
11	지나온 평생을 회고해 볼 때 나의 일생은 성공적이다	133 (54.5)	111 (45.5)	2.725	2.464		
12	현재 나의 건강상태는 또래 나이보다 비슷하거나 더 좋다	173 (70.6)	72 (29.4)	3.531	2.495		
13	내가 하는 일들이 과거의 어느 때보다 지금이 더욱 흥미롭다	126 (51.9)	117 (48.1)	2.593	2.282		
14	나는 지금도 바쁘고 가치있는 생활을 하고 있다.	162 (66.4)	82 (33.6)	3.320	2.503		
15	금년 들어 여러 가지 자질구레한 일들이 나를 더욱 괴롭힌다.	102 (41.8)	142 (58.2)	2.910	2.367		
16	나의 일생은 현재보다 더 행복할 수도 있었는데 불행히도 그렇게 되지 못했다	123 (50.4)	121 (49.6)	2.480	2.471		
17	나는 조그마한 일에도 쉽게 화가 난다.	65 (26.6)	179 (73.4)	3.668	2.505		
18	나에게는 슬퍼할 일이 많이 있다.	78 (31.8)	167 (68.2)	3.408	2.215		
19	다른 사람에 비해서 나는 자주 우울에 빠진다.	82 (33.5)	163 (66.5)	3.327	2.334		
20	여러 가지 근심·걱정이 많아서 가끔 잠을 이룰 수가 없다	101 (41.4)	143 (58.6)	2.930	2.364		
총 계 (246명)						3.042	2.468

제 V 장 결 론 및 제 언

본 연구의 결과, 기독교 노인의 종교활동과 생활만족도를 5점 만점에 전체 평균 3.042로 나타나 대체로 종교활동이 생활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일반적으로 종교는 각 개인들에게 삶의 의미와 목적을 제공하고 높은 차원의 가치관을 갖게하는 것이 종교의 목적이다.

심리적으로는 안정감과 평안을 느끼게 하며, 정신적으로도 건강하게 하는 것이 종교가 가지는 특징이다.

또한 최근에 밝힌바, 종교활동을 활발히 하는 노인들은 비종교인들에 비해 혈압이 낮게 유지되어 심장, 혈관관련 질환에 걸릴 위험이 적어진다는 연구결과⁹³⁾도 나왔다.

본 연구도 기독교 안에서 종교활동을 하는 노인의 생활만족도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기독교가 인생에 끼치는 영향이 크다고 본다.

노인의 생활만족에 관련하여 선행된 여러 연구결과를 보면 인생의 마지막 단계에 처한 노인들에게 있어 종교는 삶에 영향을 끼치는 매우 중요한 변인임을 알 수 있다.

정신적, 육체적으로 쇠약해져 있고 가정이나 대인 관계 속에서 민감하고 또한 상처 입기 쉬운 이들이 노인들이다.

때문에 살아온 기간을 정서적으로 경험적으로 잘 정리하고 심리적으로

93) 국민일보, 1998년 8월 13일자, 미국 듀크대 연구보고서, 스캐틀라이나주에서 1986년과 1989-1990년, 1992-1993년 3차례에 걸쳐 65세 이상 노인 2천3백91명을 대상으로 종교활동 여부와 혈압의 관계를 조사함.

통합된 안정감을 갖도록 하는 일이 성공적인 노화를 돕는 일이 된다고 볼 때, 이러한 노인들에게 바른 종교생활을 하도록 격려하고 배려하는 일은 현시대에 절실하게 필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로 보건대, 기독교 노인들의 생활만족을 높이기 위한 방향으로서는 노인들 스스로 삶속에 신앙의 원리를 내면화시키는 노력이 지속적으로 필요하고, 종교활동을 계속할 수 있는 교회적 차원에서 배려가 있어야 할 것이다. 종교적 신앙심은 활동을 제한할 때 더 성숙되지 못한다.

기독교 신앙은 노인들에게서 나타나는 무능력이나 좌절감, 고독과 소외, 불안과 공포로 인한 부적응 현상들을 해소하고 노년기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아울러 성공적인 노화를 이루어 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오늘의 교회의 사명은, 외향적이고 기복적이며 형식주의 적인 신앙인에서 벗어나 성숙된 신앙인으로 만들어 나가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실천적인 신앙인의 삶이되어 자손들과 이웃에 더욱 본이 되는 삶으로 이끌어 가는 것이다.

우리나라 노인문제가 심각한 이때에 노인들의 생활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고 심리적 차원과 복지적 차원에서 필자는 본 연구를 하게 되었다.

아무리 사회가 노인문제를 해결하고자 노인복지를 한다해도 그 먼저 심리적,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순서는 바뀌는 것이라 생각하며, 영·육이 함께 행복감과 만족을 느끼는 삶이 어떤것인가를 연구하고자 했다.

궁극적인 삶의 의미와 목적을 발견하여 자신의 가치를 인정한다면 노

인들의 삶은 필연 남은 여생이 보람되고 활기찰 것이다.

그러므로 필자는 몇가지 기독교에 제언을 하고저 한다.

1. 기독교 안에서의 교회는 노인들의 영적 욕구를 충족시켜야 한다.

이 욕구를 충족시킴으로써 노인들의 개인적, 인격적, 사회적 문제를 도울 수 있다. 노인들이 당면한 죽음에 대한 불안을 해소시키는 일이 곧 교회의 사명이고, 노인들의 여생이 더욱 활기차고 보람되고 가치있는 삶이 되게 하는 것이다.

2. 교회는 노인을 위한 사회복지적 서비스 프로그램을 마련하여야 한다.

교회는 물적 지원뿐 아니라 건물을 개방하여 노인들을 위한 집회와 모임을 평일에도 계속가질수 있어서 지역에 있는 비기독교 노인들과 친교, 교육, 상담, 의료서비스 제공, 노인들의 여가시간을 이용하는 봉사활동의 장소로 활용되어야 할 것이다.

3. 교회는 경로효친 사상을 고취시킬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온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특별한 관심과 다양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오늘날 효 사상이 퇴색되어지고 물질만능 주의로 경제적 능력이 없는 부모들은 점점 젊은 세대에 밀려 기죽어 가는 시대에, 교회는 그런 사회에서 소외된 자를 돌아 보는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네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 하리라.” (엡6:1-3)

參考文獻

1.國內 文獻

<單行本>

기독교 사회복지 연구소, 「기독교 사회복지」, 1995. 5호. 1993.

김성순, 「고령화 사회와 복지행정」, 서울 : 홍익제, 1987.

김성순, 「노인 복지론」, 서울: 이우 출판사, 1981.

대한 예수교 장로회 총회 사회부, 「교회 사회봉사 총람」, 서울: 장로교
총회 사회부, 1994.

박재간, 「고령화 사회에 위기와 도전」, 서울: 나남 출판, 1996.

손창달, 「노인과 가정」, 서울: 한국노인문제 연구소, 1997.

윤진, 「성인 노인 심리학」, 서울 중앙적성 출판사, 1985.

최성재, 「현대 한국 사회의 변 과 노인문제의 원인과 전망」, 서울: 두
란 노서원, 1994.

한준석 역 「인생의 사계절」 서울: 종로서적, 1981.

황진수, 「현재 복지 행정론」, 서울: 대영 문화사, 1996.

<論文>

권규식, “핵가족화와 노인문제”, 성곡논총, 서울 : 성곡학술 문화재단,
1993.

강현원, “노인 교육과 교회성장”. 장로회 신학대학원 논문.

김명자, “여가활동과 행복한 노후생활의 향유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1993.

김민정, “노인 자원봉사활동과 생활만족도 연구”, 한성대학원, 석사논문,
1998.

- 김수연, “도시노인의 생활만족도와 관련 변인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원, 1987.
- 김재인, “후기 성인의 사회 교육적 학습 참여와 생활만족도와의 관계 탐구” 1986.
- 김찬중, “노인선교를 위한 노인복지 사역으로서의 노인교육 프로그램에 관한 연구” 아세아 연합 신학대학원, 1986.
- 김태현, “노년기의 생활만족도 연구” 성신연구 논문집, 성신여자대학교, 1986.
- 김태현외 4명, “노년기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연구”, 한국 노년학 제18권, 노년학회, 1998.
- 김행자, “서울 시내 일부 노인들의 소외 정도에 관한 조사 연구”, 대한간호학회지 제4권, 1974.
- 맹희재, “재가 노인의 고독감에 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원 논문, 1985.
- 민경익, “노인문제와 교회의 역할”, 서울신학대학원, 1997.
- 박계범, “노인의 가정내 역할과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 성균관 대학원 석사 논문, 1985.
- 박미령, “가족내 노인의 소외감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논문, 1985.
- 박병권, “기독교 노인의 종교성향과 삶의 만족도 연구”,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1997.
- 안홍자, “노인생활에 영향을 주는 요인과 그들의 생활적응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 석사논문, 1975.
- 이영길, “노인의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 -종교 및 사회활동 참여 중심으로-, 청주대학 행정대학원, 1994.
- 이우복, “노인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 충북대학원 석사논문

문, 1993.

이원규, “종교의 사회 통합 기능에 대한 경험적 연구, 성곡논총 제 20집.

이종문, “기독교인의 신앙 성숙도와 삶의 만족도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원, 1995.

이철우, “정년퇴직 노인들의 퍼스낼리티와 생활만족도의 관계에 관한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논문, 1990.

이춘희, “남자노인의 역할 활동과 생활만족도”, 서울 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1992.

장상희, “대도시 노인들의 생활만족도에 관한연구”, 부산대학원 논문, 1983.

정혜정, “여성 노인의 스트레스와 심리적 적응에 관한 연구” 1998. 한국노년학, 제 18권 3호, 노년학회.

최성재, “노인의 생활만족도 척도개발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한국문화 연구원, 논총 42집, 1986.

최혜경, “노인의 생활만족도 향상을 위한연구” 1985.

한상호, “종교가 노인에게 미치는 영향” 한국학술 진흥 재단, 1991.

홍순혜, “활동이론에 따른 노인의 생활만족도에 관한 실증적 연구” 서울대학원 논문, 1984.

홍종호, “교회사역에 있어서 노인문제에 관한연구”, 서울 신학대학원 논문.

국민일보 1999. 2. 3일자.

2. 外國 文獻

C. W. Allport & T. M. Ross, "Personal Religious Orientation and for SSR, Vol. 5" 1967.

Irving Rosow, Socialization to Old Age, (Los Angeles: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77), pp. 7~12.

M. L. Barron, "The American: An Introduction to Social Gerontology and Geriatrics" (New York: Thomas Y. Crowell, 1961), pp. 278~279.

Wingrove & Alston "Age, Aging and Church attendance" *The Gerontologist* 1977. pp. 356-358.

Bahr, "Aging and Religious Disaffiliation", *Social Forces*, 1970, No.49, pp. 356-358.

D. Moberg, Religion in the later, In A. Hoffman(ED), The, daily needs and interests of older persons. Springfield IL: Charles C. Thomas. 1970.

Blazer & E. Palmore "Religion and Aging in a longitudinal panel" *The Gerontologist* 16. 1976. pp.82-84.

David D. Moberg "Religiosity in old Age" B. L. Neugarten, Middle Age and Aging the University of Chicago. 1975. pp. 497-508.

Brauce Hunsberger "Religion, Age, Life Satisfaction and Perceived Sources of Religiousness: A Study of Older persons" *J of G* 40(5) 1985. pp. 615-620.

R. C. Crandal "Gerontology: A Behavioral Science Approach" Addison Wesley, Reading, M.A.

- Hood, R. W. Jr(1985) "The conceptualization of religious purity in Allport's typology", *Journal of the scientific study of religion*.
- Hood, R. W. Jr(1985) "The conceptualization of religious purity in Allport's typology", *Journal of the scientific study of religion*.
- Melvin L. Wilkinson & William C. Tanner "The Influence of Family Size, Interaction and Religiosity on Family Affection in a Mormon Sample" *J of M. F.* 1980(2). pp.297-304.
- Allport, G. W. Ross. J. M.(1967), "Personal religious orientation and prejudic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 5 No.4. p. 432-443
- N. M. Bradburn, *The Structure of Psychological Well-Being* (Chicago: Adine, 1969).
- M. P. Lawton, "The Dimensions of Morale" *Research Planning & Action for the Elderly*, ed. K. R. Kastenbaum & S. Sherwood (New York: Behavioral Publications, 1972), p.148.
- Cumming, E. & W. Henry, 1961, *Growing old : The process of Disengagement*, New York Basic Book.
- J. J. Dowd. "Aging as Exchange: A preface to Theory", *Journal of Gerontology*, 30 ,No. 5, 1975.
- K. Wolff, "Group Psychotherapy with Geriatric Patients in a State Hospital Setting: Results of a Three-Year Study" *Group Psychotherapy*, 1959, pp. 12:218-222.

- 설 문 지 -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저는 한성 대학원에서 사회복지를 전공하고 있습니다.

이 설문지는 교회 어르신들의 신앙생활과 삶의 만족도를 연구하고자 몇가지 여쭙겠습니다오니 불편하시더라도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응답해 주신 내용은 컴퓨터로 통계 처리되어 연구자료에만 사용되기 때문에 타인에게 알려질 염려가 전혀 없습니다.
번거로우시더라도 어르신의 솔직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귀중한 시간을 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케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것을 가진자로다.”

(고후 7: 10)

1999. 4. 26.

한성대학원 행정대학원

복지행정학과 사회복지전공

강 경 혜 올림.

어르신께 몇가지 여쭙어 보겠습니다.

해당되는곳표시(○)해주십시오.

1. 사시고 계시는 지역은 어디십니까?

(1) 서울, 경기

(2) 지방

2. 귀하의 성별

(1) 남

(2) 여

3. 귀하의 연세는 ?

(1)60-65세

(2)66-70세

(3)71-75세

(4) 76세 이상

4. 자녀는 몇남매 두셨습니까 ? 아들 딸 (총 명)

5. 현재 배우자는 계십니까 ?

(1) 혼자

(2) 부부

6. 귀하의 생활비 총당은 ?

(1) 자녀들이 준다.

(2) 내가 해결한다.

(3) 국가에서

7. 현재 귀하의 생활수준은 어떠하다고 생각되십니까?

(1) 매우 어려운편

(2) 어려운편

(3) 살사는 편

8. 본인이 생각하실 때 건강정도는 ?

(1) 건강하다.

(2) 보통이다

(3) 건강치 못하다.

신앙생활 중 몇가지 여쭙겠습니다. 위와 똑 같이 ○표시해 주십시오.

1. 어르신의 직분은 무엇입니까?

(1) 교역자 (2) 장로 (3) 집사. 권사 (4) 직분없음

2. 믿으시게 된 동기는 ?

(1) 모태신앙 (2) 타인의 권유로 (3) 자원해서 (4) 자녀들로

3. 1주일에 몇 번 교회에 출석하시게 됩니까?

(1) 주일날 (2) 주일, 수요일 (3) 주일, 수요일, 새벽

4. 허전하거나 외로움을 느낄 때 더욱 하나님을 의지한다.

(1) 정말 그렇다. (2) 대체로 그렇다. (3) 그렇지 않다.

5. 하루 일과중 기도, 말씀청취, 묵상 시간이 있습니까?

(1) 많이 있다. (2) 조금 있다. (3) 전혀 없다.

6. 가족중에 신자는 어느정도입니까?

(1) 온가족 모두 (2) 가족중 일부 (3) 본인만

7. 지금도 교회에서 활동하고 계십니까? (예: 말씀인도, 전도, 봉사, 심방등)

(1) 그렇다 (2) 가끔 한다 (3) 전혀 못한다

8. 교단은 어디십니까?

(교단)

9. 지금 죽는다고 해도 천국에 갈 확신이 있습니까?

(1) 그렇다. (2) 잘 모르겠다.

삶의 만족도에 관한 질문입니다.

지난 한 주간 느끼신 것을 예, 아니요 에 “V”표시해 주십시오.

- | | | |
|---|----|------|
| 1. 나는 요즘 하늘을 나는 것처럼 기분이 좋다. | 예, | 아니요. |
| 2. 나는 일상 생활에서 원기가 왕성하다. | 예, | 아니요. |
| 3. 내가 살아온 일생을 회고해 보면 일생을 이렇게 살아온데 대체로 만족한다. | 예, | 아니요. |
| 4. 내 일생에서 지금이 가장 행복한 때이다. | 예, | 아니요. |
| 5. 나는 따분하고 지루하게 느끼고 있다. | 예, | 아니요. |
| 6. 나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는 거리감과 외로움을 느낀다. | 예, | 아니요. |
| 7. 나는 우울하고 기분이 언짢다. | 예, | 아니요. |
| 8. 일생을 살고나서 뒤돌아 보니 나의 인생행로가 이렇게 된데 대하여 가슴이 아프다. | 예, | 아니요. |
| 9. 나는 나이든 지금도 젊은 시절과 마찬가지로 행복하다. | 예, | 아니요. |
| 10. 내가 하고있는 일들은 옛날과 마찬가지로 지금도 흥미롭고 재미있다. | 예, | 아니요. |
| 11. 지나온 평생을 회고해 볼때 나의 일생은 성공적이다. | 예, | 아니요. |
| 12. 현재 나의 건강상태는 또래 나이보다 비슷하거나 더 좋다. | 예, | 아니요. |
| 13. 내가 하는 일들이 과거의 어느때보다 지금이 더욱 흥미롭다. | 예, | 아니요. |
| 14. 나는 지금도 바쁘고 가치있는 생활을 하고 있다. | 예, | 아니요. |
| 15. 금년들어 여러가지 자질구레한 일들이 나를 더욱 괴롭힌다. | 예, | 아니요. |
| 16. 나의 일생은 현재보다 더 행복할 수도 있었는데 불행히도 그렇게 되지 못했다. | 예, | 아니요. |
| 17. 나는 조그마한 일에도 쉽게 화가 난다. | 예, | 아니요. |
| 18. 나에게는 슬퍼할 일이 많이 있다. | 예, | 아니요. |
| 19. 다른 사람에 비해서 나는 자주 우울에 빠진다. | 예, | 아니요. |
| 20. 여러가지 근심, 걱정이 많아서 가끔 잠을 이룰수가 없다. | 예, | 아니요. |

ABSTRACT

A study on religious activities and life-satisfaction of the Christian elderly

Kang, Kyong Hye
Major in Social Welfare
Dept. of Welfare Administration
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Hansung University

The elderly problem is one of the biggest issue in Korea these days. This cause many problems because of the rapid increasing of the elderly's population, and one of important problems is mental problem.

This study focused on life-quality of the elderly and could make the elderly think what is the best way to prepare for coming death and how well they could spend their rest of life. Therefore, this study learned how the Christian church activities affected the elderly's life-satisfaction.

The elderly who were Christian in the outskirt of Seoul were surveyed. The elderly who were Christian and over 60 were interviewed by some students who were majoring in Christianity and me and total 246 books were used for reference to analyze the result.

The main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general background and religious activities of the Christian elderly were researched.

Second, life-satisfaction of the Christian elderly in considering their background were researched.

Finally, life-satisfaction of the Christian elderly in considering their religious activities were researched.

The result of this study showed that the religious activities of the Christian elderly was the most important factor to make their life-satisfaction better and the elderly who joined the religious activities with confidence of salvation were highly satisfied with their life.

From now on, Christianity is supposed to be in charge of doing something that the society couldn't do. Especially, Christianity should concern the elderly's desire, have regard to someone who is shunned, and help them mentally and spiritually to spend their rest of life fruitfully for the social welfare.